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 나침반

2015. 04. • UC 15-02 •

최근 2년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KINU 통일연구원

최근 2년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국제전략연구실장)
정성철(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현승수(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신종호(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요약 ····· 1

Ⅰ. 서론 ····· 4

Ⅱ. 최근 2년간 4개국 정상외교의 현황과 분석 ····· 5

1. 미국 ····· 5
   가. 현황 ····· 5
   나. 분석 ····· 7

2. 중국 ····· 8
   가. 현황 ····· 8
   나. 분석 ····· 13

3. 일본 ····· 16
   가. 현황 ····· 16
   나. 분석 ····· 17

4. 러시아 ····· 19
   가. 현황 ····· 19
   나. 분석 ····· 20

Ⅲ. 정상외교 전망 및 시사점 ····· 22

1. 전망 ····· 22
   가. 미국 ····· 22
   나. 중국 ····· 24
   다. 일본 ····· 25
   라. 러시아 ····· 26

2. 시사점 ····· 28
   가. 추세 ····· 28
   나. 분석 ····· 29
   다. 고려사항 ····· 34

부록 ····· 36

요약

최근 국제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패권의 '상대적 하락(decline)'과 '중국의 부상(China Rising)' 및 '지정학의 부활(The Return of Geopolitics)'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주요 강대국의 최고지도자가 수행하는 '정상외교(Summit Diplomacy)'는 글로벌 및 지역적 차원의 질서와 안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지도자의 양자 혹은 다자간 직접적인 만남인 정상외교는 해당 국가의 선호(preference)와 의지(willingness)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미 2013년 미·일·중·러 등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자국의 국익 확보를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인 올해에도 이러한 정상외교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2년간(2013.1~2014.12) 미·일·중·러 4강이 수행한 정상외교의 방향과 특징 등에 대한 검토는 이들 국가들의 외교정책 방향과 목표 파악은 물론 한국 통일외교의 '내용'과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2년간 총66회의 대내·대외 정상외교를 수행했다. 양자 정상외교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선언의 영향으로 인해 아시아-중동-유럽 順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다자 국제기구를 활용한 정상외교는 유럽과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의 제도와 규범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미국의 정상외교는 '강대국 중심, 지역 안배'라는 글로벌 외교의 전형이자, 양자동맹과 다자 국제기구를 혼합한 '이중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2년간 총 11차례 출국하여 32개국을 방문했고, 주로 경제·통상분야를 담당하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2년간 8차례 출국하여 21개국을 방문했다. 시진핑과 리커창 두 정상은 2년동안 중국을 방문한 130여개국 정상과 양자·다자 회담을 진행하여 총 800여개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강대국으로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대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전략·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양자회담 및 다자기구를 활용한 정상외교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다. 즉, 시진핑은 2년 연속 첫 방문국으로 러시아를 선택했고, 오바마 대통령과도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또한 다자 무대에서는 '아시아 안보관' 제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제안 및 '육상·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 전략 구상 제기 등을 통해 미국의 중국 봉쇄를 탈피함은 물론 중국의 의지가 반영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최근 2년간(2012.12~2014.9) 총49개국을 방문했고,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 우호관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했다. 소위 '지구의(地球儀) 부감(俯瞰) 외교'라는 별칭을 갖는 아베 총리의 정상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구현하고, 아시아 중시 외교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며, 러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여 국제무대에서 친일본세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최근 2년간(2012.5~2014.12) 총 59차례 출국하여 활발한 양자·다자회담을 진행했고, 자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2012.9)와 소치 올림픽(2014.2) 역시 국제사회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상하이협력기구(SCO)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 1월에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창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및 이에 따른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 외교는 난관에 봉착했고 푸틴의 정상외교 역시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특히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2012년 5월 이후 양국 정상 간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들과의 관계 역시 제한적이고 축소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2014년 이후 중국과 아시아 및 브릭스(BRICs) 국가들과의 관계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종합적으로, 최근 2년간 미·일·중·러의 정상외교는 기본적으로 각국이 국가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역내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소위 '지정학적 게임'이 복원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통해 동맹·협력국가와의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고, 기존에 미국이 보유한 다자적·제도적 파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지도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의 미국이 주도하는 규범적·제도적 권력에 순응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비전과 의지가 반영된 새로운 질서와 가치규범을 주창하기 시작했고, 정상외교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 역시 자국의 전략이익을 관철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 복귀하여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상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소위 '지정학의 부활' 시대에 글로벌·지역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강대국 간 경쟁과 협력의 틈 바구니 속에서 한국외교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특히 평화적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지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강대국 정치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통일을 이루기 위한 치밀하고 선제적인 통일외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한반도 통일이 역내 현상변경을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의사도 없다는 점을 각국에게 확인하는 '재보장(reassurance)'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4강국이 한반도 통일을 미래 경쟁국의 세력 확장으로 인식할 경우 적극적 반대 입장을 표시하겠지만, 통일한국의 탄생이 이들 강대국에 도전을 제기할 만한 강국의 출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한다면 통일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둘째, 통일 문제의 국제이슈화 전략이 필요하다. 제도화된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한반도 통일 문제를 국제이슈화함으로써 개별 국익에 기초한 강대국 정치의 한반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강대국의 대외정책에 우리의 국가이익을 투영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과잉 민족주의 및 통일지상주의를 극복하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민주, 인권 등)에 기초한 시민국가적 통일관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이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한반도의 주변 정세 유지 및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관문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통일외교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일외교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이익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를 통해 양자회담 및 다자 국제기구를 활용한 정상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I. 서론

○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는 2000년대 후반부터 동아시아에서 약화되는 추세임.

-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글로벌 패권국으로 세계 외교와 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반미 연합세력 형성을 성공적으로 억제
-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중국의 고속성장으로 동아시아에서 G2 체제가 등장하게 되자 미중 세력전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러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한미일 vs. 북중러의 냉전 구도의 재현과 신흥세력의 부상에 대한 전망이 대두
-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테러세력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을 위협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

○ 동북아 4강은 새로운 지역 질서와 제도를 둘러싼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고 있음.

-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가속화하여 동맹 네트워크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하여 자국 중심의 지역그물망 추구
- 중국은 “아시아의 꿈”을 신(新)실크로드경제권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으로 구체화하여 지역리더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한 대내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하면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대외영향력 증대를 목표로 함.
- 러시아는 경제위기와 외교고립을 타파하기 위하여 북한, 이집트 등과 반미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에너지와 자원 판매를 적극적으로 모색

○ 한국은 통일기반조성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국제적 지지와 동북아 안정이 필요함.

- 한국은 냉전기 양극체제 이후 지역질서 전이(order transition) 속에서 통일친화적인 국제환경 마련이 요구
- 김정은 정권은 핵개발과 인권문제로 미국과 갈등하고, 러시아와 일본과는 관계 개선을 통하여 자국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시도
- 신(新)냉전의 도래를 막고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활용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한 역내 평화·협력 추진방안이 필요

- 미국과 중국이 지지하고, 일본과 러시아가 동의하는 통일방안 마련을 통하여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몰두할 상황을 조성

○ 최근 동북아 4강의 정상외교를 분석하여 동아시아 정세를 전망하고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

- 국제정치는 상대국가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가지도자로 하여금 대외정책 결정을 요구
- 국가 지도자 간 직접적인 만남인 정상외교는 참가국 뿐 아니라 주변국으로 하여금 타국의 '선호(preference)'와 '의지(willingness)'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예: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 올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이하여 동북아 국가의 정상외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역 질서와 안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러시아의 2차 대전 승전기념식, 미국의 한·중·일·인니 정상에 공식방문 초청 등).
- 최근 2년간 미·중·일·러의 정상외교는 올해 각국의 외교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통일외교의 '내용'과 '전략'에 대한 방향을 제시

Ⅱ. 최근 2년간 4개국 정상외교의 현황과 분석

1. 미국

가. 현황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2년간(2013.1~2015.1) 총 66회의 정상외교를 수행함.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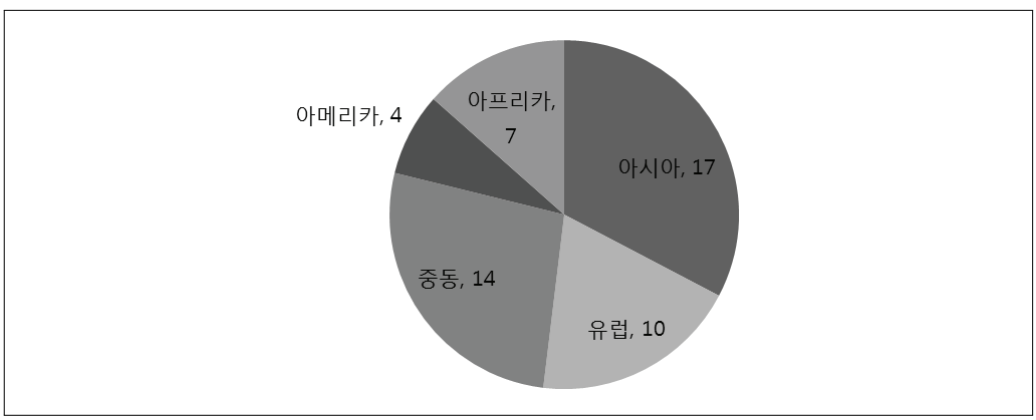
- 2013년 41회, 2014년 23회, 2015년 1월 2회의 정상외교를 국내에서 33회(대내), 해외에서 33회(대외)를 수행
- 2013년은 국내에서 외국 정상들을 주로 만났다면(대내: 28회, 대외: 13회), 2014년은 해외 정상외교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함(대내: 5회, 대외: 18회).

- 단, 해외순방의 경우 2013년, 2014년에 동등하게 5회 실시되었음.

○ 양자 정상외교는 아시아, 중동, 유럽 국가 순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짐.

- 미국과 양자 정상외교를 1회 이상 가진 국가로는 이스라엘(4회), 인도(3회), 한국·남아공·사우디·요르단·일본(이상 2회), 만델라(남아공)·압둘라(사우디)(장례식 참석)임.
- 다자외교기구가 발달한 유럽 국가와 달리 아시아와 중동의 경우 양자 정상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짐.
- 특히 미국의 아시아 중시 경향은 아시아 정상외교 횟수로 확인할 수 있음.

〈양자 정상외교 횟수〉



※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미군 부대 방문(2014년 5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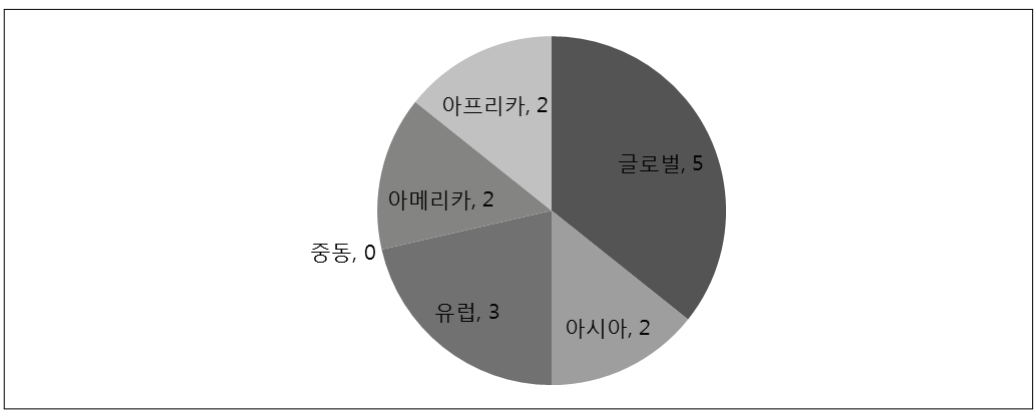
○ 다자 정상외교는 글로벌 및 지역 수준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G7, G8, G20과 같은 글로벌 선진국 모임을 통한 다자외교를 축으로, APEC, NATO, North American Leaders' Summit 등 지역수준 다자기구를 활용
- 다자 외교를 통하여 반복하여 만나는 국가들은 대체로 강대국 혹은 동맹국으로 유럽과 아시아에 편중
  - 캐나다(8회), 러시아, 일본(이상 7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이상 6회), 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영국(이상 5회), 싱가포르, 인도, 뉴질랜드(이상 4회)

○ 유럽과 선진국에 대하여 다자외교를 이용하고, 중동과 아시아의 경우 양자외교를 활용하는 모습임.

- 이스라엘의 경우 양자외교를 통해서만 정상외교가 이루어졌으며, 영국·프랑스·독일의 경우 주로 다자외교를 활용하여 관계를 유지함(한 차례 제외).
- 아시아 국가는 유럽과 중동의 양 극단 사이에서 양자와 다자를 동시에 활용하여 미국과 정상외교를 펼침.
- 한편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강국의 경우 다자외교 뿐 아니라 양자외교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 형성을 주도하지만, 러시아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양자외교는 부재

〈다자 정상외교 횟수〉



나. 분석

○ 미국의 정상외교는 초강대국의 '강대국 중심·지역 안배'의 글로벌 외교의 전형임.

-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외교로 주요 강대국과의 관계 및 채널을 유지 및 발전시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근간을 공고히 함.
- 다만, 유럽에 비하여 지역수준의 국제기구가 발전이 미진한 아시아의 주요 강대국의 경우(일본, 인도 등) 양자외교를 통하여 관계 강화를 추구
- 양자 외교의 경우는 아시아, 중동, 유럽에서, 다자외교의 경우는 글로벌,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와 균형을 유지하며 추진되고 있는 상황

○ 미국 외교의 무게중심은 이미 유럽과 중동에서 아시아로 상당히 옮겨간 상황임.

- 양자외교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가장 많은 정상외교를 가졌으며(아시아 17회, 중동 14회, 유럽 10회), 다자외교의 경우 APEC과 EAST ASIA SUMMIT에 참석할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와 TPP를 출범하기 위한 노력 경주
-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 선언이 레토릭이 아닌 미(美) 외교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천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함.
- 흥미로운 점은 인도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미국과의 양자 정상외교 횟수가 높다는 사실로, 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의도와 전략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은 지역과 상대국을 고려하여 양자동맹과 국제기구를 혼합하여 구사하는 '이중전략'을 사용하고 있음.

- 9.11테러사건 이후 미국 외교가 군사력과 외교력을 혼합한 스마트 파워를 지향하게 되면서 외교력 역시 양자외교와 다자외교를 결합한 스마트 외교를 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유럽과 강대국의 경우 기존의 기구와 제도를 통해 다자외교 파트너로 협의와 조율을 추구하고, 비유럽과 비강대국의 경우 양자외교를 통하여 직접적 접촉을 적극적으로 추진
- 한편,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경제 제도, 기구를 창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궁극적으로 유럽의 경험을 다른 지역에 적용시켜 미국 주도의 다자안보와 경제통합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 반대로, 중동의 경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역내 소수인 동맹과 우방과의 양자외교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역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임.

2. 중국

가. 현황

○ 중국의 정상외교(首腦外交)는 시진핑(習近平)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하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이하 '총리')가 수행하는 외교활동을 지칭하지만, 국가주석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중국은 공산당(CCP)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대내외 모든 주요 정책을 결

정하는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로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시진핑, 리커창, 장더장, 위정성, 류윈산, 왕치산, 장가오리)이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각의 영역에서 고유의 역할을 분담하는 집단지도체제로 운영

- 시진핑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위를 후진타오(胡錦濤)로부터 승계했고,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국가주석 및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위를 차지한 명실상부한 최고권력자로서 대내외 정치외교분야 업무를 총괄
- 리커창은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원 총리로서 주로 대내외 경제통상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최근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 증대와 영향력 확대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대외 경제외교 활동도 갈수록 중시

○ 최근 2년(2013~2014년) 동안 시진핑 국가주석은 11차례 출국하여 32개국을 방문, 리커창은 8차례 출국하여 21개국을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이고 활발한 정상외교를 수행하고 있음.

- 2013년 시진핑은 4차례 출국하여 14개국을 방문했고, 리커창은 3차례 출국하여 9개국을 방문함. 두 정상은 한 해 동안 중국을 방문한 65개국 정상을 맞이했으며, 대내외 정상외교를 통해 총800여개의 협력 합의서를 체결함.
- 2014년 시진핑은 7차례 출국하여 18개국을 방문했고, 리커창은 5차례 출국하여 12개국을 방문함. 두 정상은 한 해 동안 중국을 방문한 70여개국 정상과 정상외교를 진행하였음.

(1) 2013년 시진핑의 정상외교 현황

○ 2013년 한 해 동안 시진핑 국가주석은 총4차례 출국하여 14개국을 방문함.

- 3월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 첫 방문국으로 러시아 선택
- 러시아는 중국에 2018년부터 30년간 매년 380억㎥의 천연가스 공급 및 SU(수호이)-35 전투기 24기와 아무르급 잠수함 4척 도입 등에 합의하였고, 상대국 통화사용 확대 등의 통화스왑 협력 강화에도 합의함.
-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 강연에서 시진핑은 “신발이 발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신발을 신은 사람만이 알 수 있고, 한 국가의 발전 방향은 그

나라 사람이 가장 잘 안다"는 소위 '신발론(鞋子論)'을 언급함으로써 각국이 타국의 체제와 발전노선을 상호존중할 것을 주장함.

○ 5월, 중남미 3국 방문시 미국을 경유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비공식 회담을 진행함.

- 시진핑 국가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광활한 태평양은 미·중 두 강대국을 품을 수 있을만큼 넓다(宽广的太平洋有足够空间容纳中美两个大国)"고 언급함으로써 미중간 상호존중과 포용을 강조함.
- 하지만, 미중 양국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 미국의 對대만 무기판매문제,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 문제, 중국의 환율조작 문제 등에서 견해차이를 노정
- 오바마 대통령 역시 "양국 간 불가피하게 긴장된 분야들(areas of tension)이 있다"는 점을 인정

○ 9월과 10월에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방문하여 소위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구상을 공식적으로 제안함.

- 9월, 중앙아시아 4개국(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시 소위 '육상 실크로드(陆上丝绸之路)' 구축을 제안함.
- 10월, APEC 회의 참석차 방문한 동남아 2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소위 '해상실크로드(海上丝绸之路)' 건설을 제창함.

○ 시진핑은 중국을 방문한 60여개국의 외국 원수들과도 정상외교를 진행함.

- 중국을 방문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4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4월), 압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5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6월), 박근혜 대통령(6월),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7월), 우후루 케냐 대통령(8월),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9월) 등과 회담
- 4월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은 "가까운 친척처럼 잘 지내고, 가까운 이웃끼리 잘 지내기를 희망한다(親望親好, 隣望隣好)"고 하여 주변외교를 강조함.

(2) 2014년 시진핑의 정상외교 현황

○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은 총 7차례 출국하여 18개국을 방문했으며, 첫 방문국은 2년 연속 러시아로 결정됨.

- 2월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필두로 한 해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푸틴대통령과 5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
-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시진핑은 "친척은 자주 찾아갈수록 친해지고, 친구는 자주 만날수록 가까워진다(親戚越走越親, 朋友越走越近)"는 소위 '친척론'을 언급함으로써 중국이 최근 주변외교를 강조하고 있음을 강조

○ 3월, 유럽 4개국과 유럽연합 본부를 방문하여 다양한 형태의 동반자관계를 강화함.

-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과 다양한 형태의 동반자관계 네트워크 구축
- 유네스코 본부 및 유럽연합 본부 방문, 중국-유럽연합 간 '평화, 성장, 개혁, 문명의 동반자관계'를 선언
- 벨기에 방문시 시진핑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나 발전 방식을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순 없다"는 소위 '탱자론(橘化爲枳)'을 언급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상호존중을 강조

○ 시진핑은 한국과 몽골을 각각 단독방문하여 정상외교를 수행하는 파격도 단행함.

- 7월, 한국을 단독방문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 및 지역평화와 협력 방안을 협의했고, 12개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90여개의 협력사업을 확정
- 8월, 몽골공화국을 단독방문하여 30여개의 협력의향서에 서명하는 등 중국-몽골관계를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고, 시진핑은 "중국의 발전이라는 '특급열차'에 타도 좋고, '무임승차'도 환영한다"는 소위 '중국열차 탑승론'을 제시하여 '중국위협론' 불식 및 '중국기회론'을 설파

○ 시진핑의 정상외교는 중남미,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대양주 등으로 대상을 확대함.

- 7월,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참석차 중남미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바)을 순방하여, 자본금 500억달러 규모의 '신개발은행(NDB)' 본부의 중국 상하이 설치 합의 및 1000억 달러의 위기대응기금 마련 등에 합의했고, '중국-중남미 포럼' 창설에도 합의
- 9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중앙아시아(타지크스탄)를 방문했고, 남아시아 3개국(몰디브, 스리랑카, 인도) 방문시에는 중국의 남아시아에 대한 대규모 경제투자에 합의
- 11월, G20 회의 참석차 대양주 3개국(호주, 뉴질랜드, 피지)을 방문했고, 특히 태평양도서국가에 대한 대규모 원조를 약속

○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 증대와 영향력 확대를 반영하여 중국에서 열린 다자외교무대에서 국제적 어젠다를 주도하려는 의도를 표출함.

- 5월, '아시아 교류·신뢰구축 회의(CICA)'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동(共同), 종합(綜合), 협력(合作), 지속가능한(可持續) 아시아 안보관"을 제창하고, 24개국이 참여한 CICA를 아시아안보대화협의체로 발전시키려는 의지 표출
- 11월, APEC회의에서는 '아시아의 꿈(亞洲的夢)'을 제시하고, 400억달러의 실크로드 기금 출자를 약속했으며, 회원국·비회원국 모두와 정상외교를 수행
- APEC 기간 중 시진핑-오바마 간에 이루어진 5시간 동안의 '달빛 산책'에서는 '신형대국관계' 구축 문제와 최근 홍콩문제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짐.

(3) 2013~2014년 리커창의 정상외교 현황

○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최근 2년간 총8차례 출국하여 21개국을 방문함.

- 2013년 리커창은 3차례 출국하여 9개국을 방문했고, 2014년에는 5차례 출국하여 12개국을 방문

○ 리커창 총리의 정상외교는 주로 경제통상분야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중국의 고속철(高鐵)에 대한 '세일즈 외교' 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둠.

- 리커창 총리는 2014년 5차례의 해외 순방을 통해 케냐(168억 달러), 영국(300억 달러), 그리스(56억 달러), 독일(181억 달러), 러시아(152억 달러), 이탈리아(100억 달러), 미얀마(80억 달러) 등과 1천40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을 주도
- 특히 리커창은 '고속철 세일즈맨'을 자처하여 중국의 고속철을 해외에 판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나. 분석

○ 정층설계(頂層設計, Top-level design)를 통한 동반자 네트워크를 구축함.

- 시진핑은 2012년 11월 18차 당 대회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대전략(Grand Strategy)'을 구상해 왔는데 이를 '정층설계'라고 지칭
- 최근 2년간 중국 최고지도자의 해외순방을 통한 정상외교의 수행은 중국 외교 '정층설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 2013년 10월에 개최된 '주변외교 공작 좌담회' 역시 주변국 외교의 통일적 관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중국지도부의 '정층설계'의 결과물임.
- 중국외교의 '정층설계'를 통해 강대국, 주변국,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자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한 결과, 2014년 12월말 현재 67개 국가 및 5개 지역과 총 72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동반자관계를 형성

○ 해외순방을 통해 정상외교를 증대시키고 다양화하였음.

- 2013년 취임한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해가 지날수록 해외 순방이 증대되고 있음. 2013~2014년 2년 동안 시진핑은 11차례 출국하여 32개국을 방문, 리커창은 8차례 출국하여 21개국을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이고 활발한 정상외교를 수행
- 순방국가 역시 강대국, 주변국, 개발도상국, UN 등의 국제기구 등으로 다양화

○ 국제외교무대에서 '중국 스타일' 구현을 노력함.

- 시진핑 등 지도부의 해외순방시 연설 및 강연 등을 통해 유가사상 등과 같은 중국 전통문화를 강조함으로써 중국 전통문화(문명)를 외교에 접목하려는 시도 증대
- 2013년 3월 러시아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 강연시 시진핑은 "신발이 발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신어봐야 알 수 있고, 한 국가의 발전 방향이 적절한지 아닌지도 그 나라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것"라는 소위 '신발론'을 제시하여, 각국이 체제와 발전노선을 상호존중할 것을 주장
- 2013년 10월 개최된 주변외교공작좌담회에서 "친밀(親), 성실(誠), 호혜(惠), 포용(容)"의 주변외교 이념을 제시
- 2014년 3월 벨기에 방문시 시진핑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이, 중국은 타국의 정치제도나 발전 방식을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순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존중 등을 요구
- 2014년 11월 중공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시진핑은 "중국만의 특색을 지난 강대국 외교를 형성해야 하고, 중국의 스타일(風格)과 기상(氣派)을 지녀야한다"고 주창
- 2014년 발간된 시진핑 저서 『치국리정(治国理政)』에서 자신의 정치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유교 창시자인 공자의 지혜와 통찰력을 자주 인용하고, 권위와 사회질서를 존중하는 유교적 이념(仁, 義)의 중요성 강조
- 2014년 8월 시진핑의 몽골 방문시에는 "중국발전이란 '특급열차'에 타도 좋고 '무임승차'를 해도 환영한다"는 소위 '탑승론'을 제시하여 '중국위협론' 불식 및 '중국기회론' 설파에 노력

○ 홈그라운드 외교를 통한 국제적 어젠다를 주도함.

- 시진핑과 리커창을 중심으로 하는 최고지도부는 2년동안 중국을 방문한 130여개국 정상들을 상대로 정상외교를 수행했고, 이는 곧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 증대를 반영
- 중국은 자국(主場)에서 개최된 CICA 회의(2014.5)에서 '아시아 안보관'을 제시하고, APEC 회의(2014.11)에서는 '아시아의 꿈' 등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적 어젠다를 주도하려는 의도를 표출
- 외국 정상들은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시도

○ 강대국을 겨냥한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노력함.

-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 이후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전세계에 과시하는 대국외교(大國外交)를 본격적으로 가동
-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첫 해외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하고, 2014년 한 해 동안 푸틴 대통령과 5차례 회담(2월 소치올림픽 개막식, 5월 상하이 CICA 회의, 7월 브라질 BRICs 정상회의, 9월 타지크스탄 SCO 정상회의, 11월 베이징 APEC회의 등)을 가지는 등 중러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중국견제에 대응하는 포석
- 2014년 3월 시진핑은 중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유럽연합 본부를 방문하여 중국이 유럽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
- 미국과는 2013년 6월 오바마-시진핑 간 비공식 정상회담과 2014년 APEC 회의에서의 양국 정상회담 등을 개최하여 미중 간 협력 확대와 대립 억제에 기초한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시도

○ 주변외교 강조를 통해 주변국이 중국외교 로드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반영함.

- 시진핑-리커창 체제 출범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 달성에 유리한 외부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특히 최근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추세와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 강조 등에 따라 주변국과의 갈등이 증대됨에 따라 중국지도부는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를 전제로 하여 이들 국가들과의 전략·경제협력을 통한 역내 영향력 확대를 시도
- 2013년 10월 '주변외교공작좌담회'를 개최하여 중국의 글로벌 강대국 부상을 위한 주변외교의 중요성 확인, 주변외교의 목표와 정책방안 확정, 주변외교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통일적 관리 필요성 등을 강조했으며, 특히 "친밀(親)·성실(誠)·호혜(惠)·포용(容)"의 주변외교 이념을 제시
- 동 좌담회 개최 이후 중국지도부의 주변국 방문이 급증했고, 특히 시진핑은 2014년 5월 '아시아 교류·신뢰구축 회의(CICA)'에서 '아시아 안보관'을 제시했고, 동년 7~8월에는 몽골과 한국을 방문했으며, 9월 상하이협력기구 회의 참석 및 인도총리와의 회담, 11월 APEC회의에서 일본 아베 총리와의 회담 등을 수행

○ 유라시아 경략(經略)을 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2013년 중국정부가 제시한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의 교통망을 잇는 '육상실크로드(一帶)'와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및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一路)'를 동시에 구축하는 전략구상
- 동 구상은 44억명의 인구에 경제총량이 전세계의 30%(21조달러)에 달하는 50여개 개발도상국을 포괄
- 중국지도부는 2014년 5월 CICA회의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제안했고, 11월 APEC회의에서는 400억 달러의 '실크로드 기금' 출연을 약속하는 등 '일대일로' 전략구상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
-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으로서 각각 42년과 28년 만에 처음으로 스리랑카와 몰디브를 방문한 이유 역시 양자관계 강화라는 측면 이외에도 해상실크로드 추진과정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기 때문임.

○ 고속철 세일즈를 통한 경제외교를 병행함.

- 중국의 정상외교는 시진핑-리커창 투톱체제이지만, 리커창 총리는 주로 '경제외교'를 담당
- 리커창 총리는 2014년 5차례의 해외 순방을 통해 케냐(168억 달러), 영국(300억 달러), 그리스(56억 달러), 독일(181억 달러), 러시아(152억 달러), 이탈리아(100억 달러), 미얀마(80억 달러) 등 다양한 국가들과 1천40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을 주도
- 특히 리커창은 '고속철 세일즈맨'을 자처하여 중국의 고속철을 해외에 판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3. 일본

가. 현황

○ 2012년 12월 아베 2차 내각이 출범한 이후 2014년 9월 해산될 때까지 아베 총리는 49개국을 방문함으로써 역대 총리 가운데 가장 활발한 대외 정상 외교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음.

- 이는 한 달에 1.15회 꼴로 출국하면서 2~3개국을 방문한 셈이며, 국제회의를 포함하여 200개국 이상의 정상과 회담(중복 포함)을 성사시켰다는 계산임.

-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 당시 18개국을 방문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임.

○ 역대 총리로서는 드물게 아프리카와 중남미, 로마교황청 등을 역방한 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5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점,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 주력한 점, 중국 및 한국 정상과의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점 등이 제2차 아베 내각의 정상외교가 갖는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음.

-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 중일 정상 간 만남이 있었으나 이를 정식적인 정상회담으로 보기는 어려움.

나. 분석

○ 아베 총리의 외교는 '지구의(地球儀)를 부감(俯瞰)하는 외교'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나 주변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지구적 규모에서 다양한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였기 때문임.

- "일본의 복귀"를 선언한 2013년 2월의 워싱턴 연설을 시작으로 2014년 1월 다보스 경제포럼, 동년 5월의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등에서 행한 아베 총리의 연설에는 그의 적극적 외교 의지와 자신감이 표출되어 있다는 평가임.
-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 또한 아베 총리 개인의 정상외교가 거둔 쾌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 '지구의 부감 외교'의 전략적 함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아베가 주창하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를 구현한다는 것임.

-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베 2기 정권의 최대 목표임. 이는 전임 정권인 민주당 집권기에 일본의 국제적 역량이 저하되었다는 일각의 비판과 자성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동시에 아베 총리는 일본의 외교 역량과 자율성 제고가 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함. 다시 말해 일본이 세계 평화에 중요한 기여 국가로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야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임.
- 그러나 전범 국가를 탈피하고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아베의 정책에 대해 대내외적 우려와 비판이 있음. 특히 아베 총리가 추

진하는 헌법 9조(일본의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의 개정은 자민당 내 의원 다수와 일본 우익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 2015년 1월 아베 총리의 중동 방문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선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는 바, 공개적으로 IS 대책 자금 지원을 공약한 것이 IS를 자극해 인질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있음.

○ 둘째,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한 남아시아 외교로, 중국 세력에 대한 견제는 아베 외교 독트린의 핵심임.

- 아베 총리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중국 주변부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임.
- 일례로 2014년 7월 16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5개국과 일본 간 다자협의체인 '5+1'에서 참가국은 힘에 의한 위협을 견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음. 이는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세력 확대를 경계하는 일본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임.
- 대중국 견제 전략은 아베 총리의 정상외교 패턴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바, 2013년 3월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과의 정상 회담 및 고위급 회담이 중단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ASEAN이나 호주, 인도, 몽골 등과의 정상외교는 대단히 활발했음.

○ 셋째, 새로운 외교 지평의 확대임. 중남미, 아프리카와 같이 전임 정권이 주목하지 않았던 원거리 국가들(아프리카, 중남미 등)과의 우호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전면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친일본세를 확대하겠다는 것임.

- 아베 총리는 원거리 순방을 통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일본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적개발원조(ODA)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짐.
- 중남미와 유럽, 아프리카 순방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순방 직후 혹은 근일 내에 이루어진 점 등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 정상이 '톱 세일즈 외교'(정상의 경제외교)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도 있음.
-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노력은 아베 총리의 주목할 만한 외교 성과로 평가

받음.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 열도) 문제를 해결하고 일러 평화조약 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 하에 추진된 아베 총리의 대러 접근에는 러시아 산 자원의 수입을 늘리고 중러 관계 심화를 막아보려는 전략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됨.

- 다만 2012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푸틴 대통령과 다섯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아베 총리의 노력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에 일본이 동참함으로써 더 이상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그러나 아베 정권 하에서 중국 및 한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정상 회담이 중단된 것은 아베 외교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본 내에서도 2015년에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중·일,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있음.

4. 러시아

가. 현황

○ 2012년 5월 출범한 3기정권 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구소련 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회담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중동부 유럽 및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들과의 정상 회담, 중국 정상과의 양자 및 다자 회담이 절충된 패턴을 보임.

○ 한편, 2012년 9월 8~9일 동안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와 2014년 2월 7~23일 소치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은 푸틴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러시아 국내외 여론의 주목을 받았음.

○ 그러나 2014년 초부터 심화된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 뒤이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대러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 외교는 난관에 봉착했고, 이는 정상외교 측면에서도 푸틴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 특별히 미러 관계의 갈등은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개인적 리더십의 갈등이 더해져 2012년 5월 이후, 양국 정상 간 회담이 부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반면, 아베 일본 총리의 적극적인 대러 관계 개선 노력에 힘입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회수는 다섯 차례에 이름.

○ 그밖에,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전까지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과의 접촉이 빈번했다는 점, 유라시아 역내 비승인국가인 압하스와 남오세티야 정상과의 회동이 있었다는 점 등이 푸틴 정상외교의 특징으로 꼽힘.[1)]

나. 분석

○ 2012년 5월 출범한 푸틴 집권 3기의 정상외교는 10년 이상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수행한 푸틴 대통령 개인의 세계관 및 국가관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의 국가전략을 현실화하는 수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0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연임을 통해 두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며 이후 4년간의 총리직을 거쳐 2012년 5월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지속되면서 러시아가 직면하게 된 국제적 전략 환경의 변화는 푸틴 대통령의 정상외교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했음.

○ 푸틴 집권 3기의 정상외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바, 이들 특징은 푸틴이 재집권 이전부터 러시아가 표방했던 외교적 국정 과제 및 러시아가 처한 국제적 위상과 관련이 있음.

---

1) 압하스와 남오세티야는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조지아의 영토였다가 2008년 8월 러시아와 조지아의 전쟁 이후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로부터 국가로 인정받았음. 그러나 이들 국가는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비승인 국가임.

○ 첫째, 유라시아(옛 소련권역)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임.

-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의 관세동맹을 발전시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 Economic Union: EEU, 2015년 1월 출범)을 창설하고 이를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EEU 가입 희망국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등 친유럽 국가들로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또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인 CSTO(집단안보조약기구)의 위상 강화를 위해 러시아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들에서 다자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 차원 외교에도 주력하고 있음.

○ 둘째, 푸틴의 핵심 외교노선인 '신동방정책'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푸틴은 SCO(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한 다자 협의 뿐 아니라 양자 협력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까지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더욱이 2013년 말부터 격화되기 시작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 심화, 대미 갈등이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를 축소시킴에 따라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의 정상외교는 거의 단절된 상태임.
- 대신 푸틴의 외교 정향은 중국과 아시아 그리고 BRICs 국가들 쪽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같은 경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된 2014년에 뚜렷히 나타나고 있음.
- 또 정상외교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 단절이 눈에 띠는 반면, 유럽,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정상과의 관계는 제한되고 축소된 형태로나마 유지되고 있는 바, 이는 경제나 안보적 측면에서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의 관계가 미러 관계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인함.

○ 셋째,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2012년 9월)나 소치 올림픽(2014년 2월) 등 러시아가 주최하는 국제행사를 정상외교의 무대로 활용하고자 의도했으나 러시아의 국가적 이미지나 푸틴 대통령 개인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임.

- 특히 소치 올림픽은 개막 직전에 발생한 일련의 테러 사건과 러시아의 인권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반(反)러시아적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치러졌고 결국 푸틴의 정상외교 활용 가능성이 축소됨.

Ⅲ. 정상외교 전망 및 시사점

1. 전망

가. 미국

○ 미국은 향후 군사력과 외교력, 양자동맹과 국제기구를 혼합한 스마트 외교를 지속 및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년 미국의 정상외교는 지역과 상대국의 따라 양자외교와 다자외교의 비중을 달리하는 외교행태를 보여줌.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신년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미국 경제의 회복을 선언하면서 군사력과 외교력을 결합한 스마트 리더십을 강조
- 신년연설 이후 발표된 2015년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미국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활용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명시
  - 미국이 향후 세계를 다음에 기초하여 리드할 것이라는 비전 제시: ▲목표와 국력 (“lead with purpose”, “lead with strength”), ▲모범과 동맹(“lead by example”, “lead with capable partners”), ▲복합수단과 장기안목(“lead with all the instruments of U.S. power”, “lead with a long-term perspective”)
- 동맹과 우방과 더불어 연합전선을 펼칠 것을 강조한 가운데 무력 사용과 강한 외교(military power with strong diplomacy)를 통해 얻어낸 성과를 강조
-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IS를 비롯한 테러집단에 대해서는 ‘무력’을, 러시아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쿠바와 이란에 대해서는 ‘협상’이라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였음을 설명함.
-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하여 동맹과 우방과 함께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은 채 외교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중국과의 지역질서를 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는 목표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지난 2년 동안 2회 이상 양자정상외교를 가진 아시아 국가는 인도, 한국, 일본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의도를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미국이 전통적 동맹국인 파키스탄과 라이벌인 인도와 잦은 정상외교를 가졌다는 사실에서 미국의 분명한 중국 견제 심리를 파악할 수 있음.
- 한편, 미국은 2013년, 2014년에 발트해 3국과의 다자 정상외교를 가진 것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이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아시아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외교 및 경제 접근이 예상
- 미국의 입장에서 향후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중러 관계가 반미연합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으로, 미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올 하반기 미국에 초청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 예정(9월)

○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 도발 및 핵개발 억제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이란 핵협상과 쿠바와의 수교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촉구
  -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테러집단과 러시아에 대하여 단호한 대처를 취하였음을 강조하는 한편, 쿠바와의 수교와 이란과의 핵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상세히 언급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도 경고를 무시한 채 도발하였을 경우 심대한 경제적·외교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이란의 경우 야당의 도움을 청하면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줌.
- 미국은 외교적 압박과 정보 유입으로 김정은 정권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난 1월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제재 수단이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터넷 등을 통한 외부정보 유입에 북한정권이 취약함을 강조함.
  -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과 북한 핵개발에 대한 미국내 북한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비군사적 압박은 당분간 지속 혹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전면적인 관계 개선을 꾀하기 보다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경제적·외교적 돌파구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
- 북핵 고도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은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가속화하면서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에 힘을 쓸 것으로 보임.

- 한국내 사드 배치 역시 최근 마틴 뎀프시 미(美) 합참의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일 3국의 MD체제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음.
- 반대로 중국의 사드에 대한 반대는 한국내 사드의 군사적 위협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에 대한 불안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미국의 외교는 중국의 부상을 관리하면서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경제의 회복으로 미국이 세계를 리드하겠다는 자신감이 복원된 상태에서 IS(이슬람국가)와 테러집단, 러시아와 같은 글로벌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
- 다만 9.11테러사건 이후 보인 일방적인 무력 중심 접근이 아닌 다자주의에 기초한 무력과 외교의 병합 접근이 대세를 이룰 것임.
- 다양한 외교 과제 중 중국을 자국 주도의 질서에 편입시키는 가운데 군사적 위협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실용적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임.
-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글로벌 도전의 양상과 미중 관계의 변화 속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
  - 이란과의 핵협상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경우 미국내 북미 협상파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은 오히려 강화될 것임.
  - 중동과 동유럽에서 미국의 관심과 자원을 요구하는 위협과 분쟁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낮은 우선순위 속에서 현재의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나. 중국

○ 향후 중국의 정상외교는 대국관계가 여전히 핵심이고 주변외교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될 전망임.

- 시진핑 체제 출범 3년차인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지도부의 정상외교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곧 산적한 국내외 현안을 해결한 후에 2017년에 예정된 제19차 당 대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 1~2년 동안 미국·러시아 등 강대국관계를 핵심(關鍵)으로 하는 대국외교는 여전히 중시하되, '친밀·성실·호혜·포용'의 주변외교 이념에 기반하여 '일대일로' 전략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미중관계: 현재와 같이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글로벌·지역적 차원에서의 '규범(Norm)' 경쟁 본격화 가능성 증대

- 미국은 기존 국제기구와 제도를 활용하여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중국은 새로운 제도와 규범 창출을 통해 자국의 의지와 비전이 반영된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됨.

○ 중러관계: 중러 밀월관계는 미국을 공동으로 견제하고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좀 더 강화될 것임.

- 특히 2015년은 2차세계대전 종결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중국은 이미 2014년에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9월 3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고, 2015년에 러시아와 함께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

○ 중일관계: 최근 중국지도부가 전방위적이고 활발한 정상외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에도 중일 갈등관계는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몇 년간 일본 아베 총리의 해외순방 목적이 중국견제 외에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올해 유엔 창설 70주년을 계기로 일본과 중국의 유엔안보리 및 유엔 총회에서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

다. 일본

○ 2014년 12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후, 12월 24일 아베 3차 내각이 출범함. 동 내각에서도 아베 총리의 정력적인 정상외교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함.

- 이미 2015년 1월 이집트 요르단 등 중동 국가들을 방문함으로써 3기 정상외교의 포문을 열었음.
- 일본의 외교 정책은 대체로 2기 내각의 노선을 벗어나지 않는 틀 안에서

입안 및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베 총리의 정상외교도 톱 세일즈 외교, 대중 견제 외교, 원거리 외교 및 적극적 평화주의 홍보 외교 등의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 아베 3기 내각의 외교에서 최대 관건은 중단된 한·일 및 중·일 정상회담의 재개 여부가 될 것임.

- 이미 2015년 3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되었는 바, 3국간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게 제고된 것은 사실이나 3국 또는 2국간 정상회담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임.
- 전후 70주년을 기념하는 8월을 전후해 아베 총리가 발표 예정인 담화의 내용이 향후 한·일, 중·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며, 아베 총리는 한·일, 중·일간 관계 개선과 정상회담의 실현을 고려해 담화의 수위 조절,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제 등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에는 미·일간 안보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양국 정상간 회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나 미일 사이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산적해 있어 아베 총리의 대미 정상 외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오키나와 소재 미군 비행장을 기존의 후텐마에서 헤노코로 이전하는 계획을 둘러싸고 미·일간 마찰 소지가 있으며, 환태평양연계협정(TPP)과 관련한 양국 간 교섭도 교착상태에 있음.

○ 2015년은 UN 창설 70주년에 해당하며 안보리를 개혁하기 위한 제반 움직임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됨. 아베 총리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어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독일, 브라질, 인도 등 상임이사국 확대를 노리는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 반도 병합으로 인해 러시아가 직면한 서방의 경제제재 및 루블화 폭락, 국제 유가 하락 등 경제적 악재는 2015년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푸틴 대통령의 정상외교 역시 이에 따른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의 대 유라시아(옛 소련권 국가들) 외교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푸틴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한 양자 및 다자 정상외교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전망도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힘듦.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정책과 크림 반도 병합이 옛 소련 국가들의 대러 위기감을 증폭시켰기 때문임.
- EEU 가입국인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형식상 동 연합에 가입해 있으면서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서서히 축소시키려 시도하고 있음.
- 일례로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2014년 루블화 가치 폭락 직후, 러시아가 벨라루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유로나 달러로 결제를 해주도록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음.
- 또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대통령은 EEU가 경제 통합 이상의 정치 통합체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음. 이는 EEU를 최종 정치 통합체인 '유라시아 연합'으로 발전시키려는 푸틴의 전략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됨.

○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 대중 협력 외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을 포함하여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정상외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러시아는 BRICs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 정상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음.
- 그러나 BRICs 그룹에서 주도권은 중국이 쥐고 있으며 러시아의 역할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임.
-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도 예상되고 있으나 그 성사 여부는 미지수이며,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북방영토(쿠릴 열도) 문제 해결과 일러 평화조약 체결로 연결되기는 난망임.
- 2015년 5월 대독 전승 70주년 행사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할 경우, 어떤 형태로건 북러 관계에 모종의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며 푸틴의 방북 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미러 갈등은 2015년에도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한 바, 푸틴과 오바마의 정상회담 전망도 밝지 않음.

- 미국은 대러 경제제재의 연장을 발표했으며, EU 역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어 러시아의 경제 위기가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음.
- 2015년 5월 모스크바에서 개최 예정인 대독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정상들이 대거 불참을 통보한 가운데, 북한, 중국 등 친러 국가들의 참석으로 반미, 반서방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외교 추이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위기의 해결과 미·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 해체, 러시아의 경제난 극복이 관건이 될 것임.

2. 시사점

가. 추세

(1) 다극화 경향

○ 이념 및 블록 중심의 '진영외교'에서 탈피하여 개별 국익 중심의 '강대국 외교'로 이행

- 상대국의 전통적 우위지역(미-중남미 지역, 러-우크라이나 등 구(舊)소련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 활동을 자제하는 경향
- 중동, 동부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은 세력의 각축장화

○ 미국 중심 단극체제가 약화되고, 중국·러시아·일본 등 '나머지'의 부상이 두드러짐.

- 적극적이며 全방위적 정상외교로 러시아의 권력국가로서의 지위 복귀 및 중국의 부상 추세 지속
- 미국 중시 전략 강화와 동시에 패전국가에서 세계국가로 외교적 지평을 확대해가는 일본은 국제정치의 명실상부한 주 행위자로 복귀하고자 노력
- 미·일·중·러 등 주요 국가가 주축 행위자로서 역내 영향력을 확장해가는 지정학적 전략 게임의 복원

○ 전통적 의미의 권력정치와 국제질서의 제도화 추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외교의 중층화 경향

- 국제질서의 제도화 및 다자화 추세와 함께 전통적 의미의 권력정치 부활이라는 국제정치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으며, 강대국 정상외교는 그 축소판임.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각국은 제도적 정당성 확보 노력과 동시에 실리외교를 동시에 추진

(2) 다원화 경향

○ 융·복합 외교가 전개되고 있음.

- 전통적 안보 및 전략 제휴 영역 이외에 에너지 및 자원, 경제, 환경, 反테러, 인권 등 제반 비전통적 안보영역에서도 정상외교 전개
- 복수 영역 이슈의 융·복합 및 연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 이슈의 세계화에 따른 국제 주류화 전략 확대 및 정상외교의 제도화 추세

- 이슈의 세계화: 공동으로 직면한 이슈의 증대(세계화의 결과물)로 다자간, 다면적 협의 채널의 활성화 추세(다자간 정상외교 심화)
- 국제 主流化(Mainstreaming) 전략: 상기 채널을 활용하여 개별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하고자 하는 국제주류화 및 편승 전략 확대(예: ISIL 문제의 국제화 및 중국의 자국판 반테러 연대 구축 시도)
- 정상외교의 제도화 추세: 집단안보 및 이슈별 국제제도화 경향에 부응하는 정상외교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러 등은 대응 제도의 주창을 통해 미국의 제도적 권력에 도전

나. 분석

(1) 미국

(가) 아시아로의 회귀

○ 아시아 동맹/협력국가와의 전략적 유대를 강화함.

- 중국의 잠재적 도전과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한국, 호주 등 전통적 우방과의 군사·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 이들 우방과의 관계를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확립 등을 매개로 한 가치

공동체적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노력

: 한미정상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 선언(2013.05.07)”에서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으며, 공통의 가치에 기초하여 아시아의 미래를 공동으로 설계하는 린치핀(linchpin)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

- 동맹국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여 동맹국의 잠재적 이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책임과 비용의 분담을 지향

: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미국의 경제력을 반영

○ 잠재적 대중 포위망을 사전에 정지하는 작업(3중 그물망 포석)을 진행함.

- 전통적 동맹국 외에도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끼는 중국 주변국가들과 유대강화로 잠재적 포위구도 구축

: 대중외교 강화 등으로 관여(Engagement)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한 봉쇄(Containment)망을 사전에 준비

- 중국남방의 접경 일선국가들(미얀마,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과 정상외교로 군사·경제적 협력관계 구축

: 외곽선으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련 등과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 유지

: 대중·대러 견제에 유용한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국가들과의 접촉은 신중을 기하는 모습

- 느슨한 환태평양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로서 중국을 제외한 TPP 건축 시도

: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기축국으로서 제도적 파워 활용

: 중남미 태평양 국가와의 협조로 선단형 외곽 포위망 구축

(나) 대러/대중동/대테러 협력노선

○ 러시아에 대한 견제 구축을 시도함.

- 기본 축선으로서 미영동맹 공고화

-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대륙동맹/협력국들과 NATO, EU 등 유럽집단안보 및 경제공동체 기구와 협력 강화

: 경제/안보 융·복합외교 전개

- 발트3국, 폴란드, 스웨덴 등 러시아 접경국들과 협력 및 느슨한 공약관계 구축

: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에는 조심스런 접근(국제사회 여론 환기 등 간접적 관여 선호)

: 일본 등과의 방위 협력 강화로 푸틴의 신동방정책도 경계

○ 중동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함.

- 이스라엘과의 긴밀한 안보공조 유지
- 요르단, 사우디, 쿠웨이트 등 대표적 친미중동국가들과 선린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한편, 모로코,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 잠재 또는 현재적 문제지역에는 상당한 영향력 행사

  : 에너지 안보 확보차원에서도 동 지역을 중요시
-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정부와의 관계를 신중히 관리하며 알 카에다, ISIL 등 테러세력 격퇴를 위한 군사·정보·경제적 협력 강화

  : 상기 지역은 대이란/대중/대러 견제를 위한 지정학적 요충지

(다) 국제사회 지도국 지위 수성

○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빈곤을 타파하려 함.

- 미얀마, 남아공 등 개혁시도/신생민주국가를 측면 지원하는 한편,
- African Leaders' Summit, 교황과의 만남, 나이지리아 수반과의 양자회담 등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빈곤타파 노력 지원

○ 기존 국제 다자간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활성화함.

- Tying Hands: 미국 주도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으로서 국제사회 조직 및 기구의 그물망에 중국, 러시아 등 잠재적 경쟁국들을 더욱 깊이 끌어들여 결박하는 전략 구사

○ 중남미에서의 패권적 지위 유지 및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음.

(2) 중국

(가) 잠재적 현상변경세력으로 부상

○ 미국과 대등한 관계정립 의지

- 양자회담을 통해 신형대국관계론, 핵심이익 존중, 대일 및 남지나해 접경 도서지역 영유권 등을 주장, 역내 세력권 형성의지 표출

  : 미국의 대만, 일본, 필리핀, 베트남 접근에 대한 불편한 심기 노정

- 대안적 국제기구·제도의 활성화/설립 의지 표출로 미국의 제도적 파워와 지도국으로서의 정통성에 간접적 도전 제기

  : 상하이협력기구(SCO) 활성화로 동남아는 물론 중앙아시아로 세력 확대

  :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에서 아시아 안보관 주창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제안 등으로 미국주도 국제협력기구에 대응

  : 기존 다자간 협력제도 및 국제기구 등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의 의지와 비전이 반영된 국제적 어젠다를 주류화 하는데도 노력

○ 대중포위망 돌파

- 대일역사인식 공유문제, 경제협력 증대 등을 매개로 한국에 적극적 접근, 미국 및 일본 견제와 한·미·일 삼각 안보공조체제 균열 시도

  : 2015년 한중정상회담 등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론 제기 등으로 그동안의 한·중 우호 증대를 배경으로한 한·미 안보공조체제 동요 조성 시도 가능성이 높음.

- 현재적/잠재적 영토분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교류 증대 등을 매개로 하여 베트남, 미얀마, 인도, 남아시아 주변국들과 우호 증대 노력

  : 인도, 베트남 등 구소련 협력국들과의 관계 진전으로 미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며 남방 포위선 구축을 저지

  : 파키스탄(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미얀마(경제지원)와의 관계 개선으로 인도를 견제하는 중첩적 헷징 및 견제전략 구사(미국, 러시아, 인도 등 경쟁국을 동시에 견제)

  : 아세안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진전으로 동남아지역에서 일본 및 미국의 세력확대 견제(해양실크로드)

○ 역습

- 경제교류 활성화를 매개로 유럽, 남미 및 대양주 국가들과 관계 확대
  : '탱자론' 등을 제시, 중국의 독자적 문화 영역 강조
- 대표적 중남미 반미 국가인 쿠바, 베네수엘라 등과 교류
  : 세계국가로서 중국의 대미 간접 압박 전술 구사
  : 최근 미국은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며 러시아, 중국의 진출 저지

(나) 유라시아 대륙동맹 동력 확보

○ 대러관계 개선

- 러시아, 몽골 등과의 관계 개선으로 잠정적 대미 연합 태세 준비
  : 후방 안정화 정책
  : 북한과의 관계개선 시도도 가능함을 암시
- 미국의 인권공세 등에 러시아와 공동대처
  : 내정간섭 배격론 거론
  : 유라시아 新실크로드론 등을 제기하며, 러시아-중앙아시아-중국을 잇는 대륙 경제공영권 건설 논의(푸친의 유라시아 연합론과 제휴)

○ 중앙아시아 이니셔티브

- 경제 및 자원외교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들과 친선 강화
  : 대러 견제 및 대륙진출 동시 추구(지정학·지경학적 선점전략)
- 중국판 대테러 연합전선 형성
  : 회교국인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구축으로 신장 분리운동의 잠정적 지원기지 무력화 의도

(다) 국제적 위상 확보 및 Follower 확대 전략

○ 개발도상국가들과의 관계 확대

- 중국의 비동맹외교 전통은 자산
  : 과거 비동맹정책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계적 강대국으로 위상 증대 의지 표출

- 경제지원을 유인으로 한 아프리카, 아시아, 구소련 후예국가들과 유대강화로 국제적 지지세력 확보 노력

  : 대미 연합전선의 외연 확대 노림수

  :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의 현실적 구현물

  : 그러나 물질적 보상 외에 가치, 문화적 기여는 매우 협소

다. 고려사항

○ 강대국 정상외교를 통해 드러난 현시대 국제정치의 조류를 감안하여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및 통일외교의 방향 검토

(1) 다극화/다원화 시대 통일관 재정립

○ 양극 및 다극체제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향후 통일외교 추진에 활용

- 냉전 양극구조는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된 반면, 한국에 시장경제 및 민주체제 안정화, 탈식민 신참 민족국가로서 비교적 순탄한 국제무대 등단, 미국의 방위공약 확보로 안보비용 감소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외교안보 정책 상의 불확실성 감소 효과(안정화 요소)를 가져옴.
- 냉전 종식 이후 20년은 미국 단극체제 하에서 주어졌던 통일 기회(통독은 양극구조 해체의 산물)가 소멸되어 가는 과정으로 점철
- 다극체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외교안보적 도전의 시기를 맞게 되었으나, 다극구조는 현상변경적 성격을 지닌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도 동시에 제공

○ 과잉 민족주의 및 통일 지상주의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음.

- 한반도 통일은 현상변경적 요인으로 지목될 가능성 지대

  : 4강국은 한반도 통일이 경쟁국의 세력 확장으로 인식될 경우, 적극적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음.

- 관계국들의 이해 및 우려를 감안, 현상과 다른 핵심이익 침해가 없을 것임을 각국에 확인하는 재보장(Reassurance)전략 수립

  : 독일 사례와 달리, 통일한국의 탄생이 이들 4대 강국에 도전을 제기할

만한 강국의 출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독일통일과 상반)을 활용

- 다극체제의 전략적 환경 하에서 과잉민족주의적 통일담론 확산은 부메랑 효과 유발(예: 북한)

  :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 작동 유발 위험

-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민주, 인권 등)에 기초한 시민국가적 통일관 확립

○ 국가안보 및 발전의 수단으로서 통일개념 재정립이 필요함.

- 한반도 정세 안정화(안보 확보) 및 국가발전 지속의 중요한 관문으로서 통일을 재평가할 필요

(2) 통일 이슈의 국제 주류이슈화

○ 전략적 의의는 다음과 같음.

- 권력게임의 제약

  : 제도화된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의 영향력 있는 Broadcasting 채널을 활용한 한국통일문제의 국제 이슈화는 강대국의 개별 이해에 기초한 권력정치적 개입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

- 주변 강국에 대한 보장효과

  : 국제주류화는 또한 한국의 통일 이후 정책에 대한 일종의 국제적 감시 및 제약 효과를 가져와 주변국 보장에도 활용될 수 있음.

○ 통일의 인류보편적 가치와 국제적 편익이 증대됨.

- 인류보편가치 확산과 민주주의 헌법정신 구현의 산물로서 통일상 전파
- 분쟁 가능 지역인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동북아 국제정치 안정화 경로로서 한반도 통일을 주지시킬 필요성

○ 정상외교를 활용함.

- 통일문제의 주류화 및 재보장 정책 추진에 있어 양자 및 다자 간 정상외교는 상징성 높은 외교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음.

* 부록 *

〈2013~2015년(1월) 오바마의 정상외교 현황〉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다자회의 참석국
2013년						
1	1.8~1.11	아프가니스탄	대내	양자	• 대통령과 양국 전략적 파트너십, 아프간 안보 및 경제 전환, 선거, 지역 현안 등을 논의	
2	2.22	일본	대내	양자	• 총리와 북한 핵 및 미사일을 비롯한 이란, 경제 협력 등에 대한 논의	
3	3.11~3.12	브루나이	대내	양자	• 술탄과 아태지역 경제와 안정, TPP, ASEAN East Asia Summit 등 논의	
4	3.19~3.20	아일랜드	대내	양자	• 총리와 양자 파트너십과 유대와 안보 및 경제 논의	
5	3.20	이스라엘	대외	양자	• 총리와 시리아, 이란, 팔레스타인 문제 논의	
6	3.21	팔레스타인	대외	양자	• 대통령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하마스 등 논의	
7	3.22~3.23	요르단	대외	양자	• 왕과 시리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요르단 문제 논의	
8	3.28	African Leaders Summit	대내	다자	• 3개국 지도자와 민주주의 경제기회를 아프리카에서 증진하는 방안 등 논의	말라위, 세네갈, 시에라리온, 케이프버드
9	4.2~4.3	싱가포르	대내	양자	• 총리와 양국 아태지역 경제 및 안보 협력 증진 등 논의	
10	4.23	카타르	대내	양자	• 국왕과 시리아 등 지역 현안 논의	
11	4.24~4.26	요르단	대내	양자	• 국왕과 시리아 난민 등 지역 현안 논의	
12	5.2~5.3	멕시코	대외	양자	• 대통령과 양국 교류와 국경 등 논의	
13	5.3~5.4	코스타리카	대외	다자	• SICA(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Summit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다자회의 참석국
14	5.6~5.8	대한민국	대내	양자	• 대통령과 동맹60주년과 FTA 등 논의	
15	5.12~5.13	영국	대내	양자	• 총리와 경제, G8, 시리아 사태 등 논의	
16	5.19~5.21	미얀마	대내	양자	• 대통령과 미얀마 정치 경제 개혁 등 논의	
17	6.2~6.4	칠레	대내	양자	• 대통령과 양국이 중시하는 경제, 인권, 법치 등 논의	
18	6.7~6.8	중국	대내	양자	• 주석과 신형대국관계와 북한, 사이버공간, 국제제도 등 논의	
19	6.10~6.12	페루	대내	양자	• 대통령과 TPP, 경제성장 등 논의	
20	6.17~6.18	영국	대외	다자	• G8	독일,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21	6.18~6.19	독일	대외	양자	• 대통령과 총리 등과 시리아, 이란, 아프간 등 논의	
22	6.26~6.28	세네갈	대외	양자	• 대통령 등과 만나 민주주의 등 논의	
23	6.28~7.1	남아공	대외	양자	• 대통령 면담과 Young African Leaders Initiative와 모임 참석	
24	7.1~7.2	탄자니아	대외	양자	• 대통령 등과 에너지 등 논의	
25	7.24~7.25	베트남	대내	양자	• 대통령과 TPP 등 양국 경제 및 군사 협력방안 논의	
26	7.29~8.1	예멘	대내	양자	• 대통령과 예멘 민주화 등 논의	
27	8.8	그리스	대내	양자	• 총리와 그리스 경제위기 등 논의	
28	8.30	발트해 3국	대내	다자	• 3국 지도자와 안보, 에너지, 무역 등에 대해 논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29	9.4~9.5	스웨덴	대외	양자	• 대통령 면담. 스노든 문제로 양자 모임을 대신	
30	9.5~9.6	러시아	대외	다자	• G20	남아공, 대한민국, 독일,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 아르헨티나, 영국,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터키, 프랑스, 호주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다자회의 참석국
31	9.13	쿠웨이트	대내	양자	• 국왕과 면담	
32	9.23	나이지리아	대내	양자	• 대통령과 UN총회 후 테러리즘, 민주화 등 논의	
33	9.24	레바논	대내	양자	• 대통령과 UN 총회 후 시리아 사태 등 논의	
34	9.27	인도	대내	양자	• 수상 내외와 국방과 안보 협력, 양자 무역과 투자, 에너지와 환경, 교육 및 개발, 아프간 여성 등 논의	
35	9.30	이스라엘	대내	양자	• 총리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와 시리아 사태 등 논의	
36	10.16~10.17	이탈리아	대내	양자	• 총리와 이탈리아 경제, 경제협력과 중동문제 등 논의	
37	10.20~10.23	파키스탄	대내	양자	• 총리와 양국 파트너십 강화방안 등 논의	
38	10.31~11.1	이라크	대내	양자	• 총리와 양국 전략적 협력과 지역현안 논의	
39	11.22	모로코	대내	양자	• 국왕과 모로코 민주 및 경제 개혁과 극단주의 대처 등 논의	
40	12.2~12.4	콜롬비아	대내	양자	• 대통령과 콜롬비아 이민자, 양국 안보 및 경제 협력 방안 등 논의	
41	12.9~12.11	남아공	대외	양자	• 만델라 장례식 참석	
2014년						
42	2.19	멕시코	대외	다자	• North American Leaders' Summit	멕시코, 캐나다
43	3.3	이스라엘	대내	양자	• 총리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문제 논의 • 이란과 시리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러시아에 대한 집중 논의	
44	3.24~3.26	네덜란드	대외	다자	• Nuclear Security Summit	UAE,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공,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베트남, 벨기에, 브라질, 사우디,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다자회의 참석국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영국,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캐나다, 태국, 터키, 파키스탄,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45	3.26~3.27	벨기에	대외	양자	• US-EU Summit	
46	3.27	바티칸	대외	양자	• 교황과 빈곤과 불평등 등 논의	
47	3.27~3.28	이탈리아	대외	양자	• 대통령과 총리 면담	
48	3.28~3.29	사우디	대외	양자	• 국왕과 지역현안 등 논의	
49	4.23~4.25	일본	대외	양자	• 총리와 일황 면담	
50	4.25~4.26	대한민국	대외	양자	• 박대통령 면담 및 주한 미군 방문	
51	4.26~4.28	말레이시아	대외	양자	• 총리와 면담	
52	4.28~4.29	필리핀	대외	양자	• 대통령 면담 및 미군 부대 방문	
53	6.3~6.4	폴란드	대외	양자	• 대통령, 총리, 대통령 당선자 방문(반체제 시위 25주년)	
54	6.4~6.5	벨기에	대외	다자	• G7	독일,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55	6.5~6.6	프랑스	대외	양자	• 대통령 방문. 노르망디 70주년	
56	6.16~6.20	뉴질랜드	대내	양자	• 총리와 TPP, 중국 등에 대해 논의	
57	8.4~8.6	아프리카 국가들	대내	다자	• US-Africa Leaders Summit	아프리카 30개국
58	9.3~9.4	에스토니아	대외	다자	• 발트해 국가 지도자들 면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59	9.4~9.5	영국	대외	다자	• NATO Summit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이탈리아,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다자회의 참석국
						헝가리(세르비아, 스위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요르단, 우크라이나, 조지아, 핀란드)
60	9.30~9.31	인도	대내	양자	•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 양국 파트너십을 논의하면서 "양국 시민이 공유하는 정의와 평등에 대한 열망"에 기초한 관계를 강조	
61	10.1	이스라엘	대내	양자	• 총리와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체계와 더불어 IS 격퇴를 위한 협의를 논의	
62	11.10~11.12	중국	대외	다자	• APEC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태국,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호주, 홍콩
63	11.12~1.15	미얀마	대외	다자	• East Asia Summit	뉴질랜드, 대한민국, 라오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호주
64	11.15~11.16	호주	대외	다자	• G20	남아공, 대한민국, 독일,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 아르헨티나, 영국,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터키, 프랑스, 호주(뉴질랜드, 미얀마, 세네갈, 스페인, 에디오피아, 싱가포르)
2015년						
65	1.25~1.27	인도	대외	양자	• 수상과 중국문제 등 면담	
66	1.27	사우디	대외	양자	• 국왕 장례식	

〈2013~2014년 시진핑의 정상외교 현황〉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2013년					
1	3.22~30	러시아, 탄자니아, 남아공, 콩고	대외	양자	• 러시아 국빈방문 및 중러 협력 강화 • 중국-탄자니아, 무역·문화·개발 등 16개 협약 서명 • 남아공(더반)에서 열린 BRICs 정상회의 참석 • 콩고 방문, 통신·인프라·금융 등 11개 협정 체결
2	4.6~8	보아오 포럼	대내	다자	• 시진핑, 보아오포럼 참석 10개국 대통령 면담
3	4.25~26	프랑스	대내	양자	•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방중시 농업과 도시화 사업 등 17개 분야 협력 논의 및 에어버스 60대 계약 합의
4	5.5~7	팔레스타인	대내	양자	• 팔레스타인 압바스 자치정부 수반, 방중
5	5.19~20	타지키스탄	대내	양자	•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 방중
6	5.25~28	우루과이	대내	양자	• 무히카 대통령 방중
7	5.27~30	스리랑카	대내	양자	• 라자 팍세 대통령 방중
8	5.31~6.8	트리니다드토바고, 코스타리카, 멕시코	대외	양자	•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 카리브해 10개국 정상과 회담(3조 3600억원 규모 차관 제공 합의) • 코스타리카에 대한 경제지원 합의(2007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코스타리카에 20억 달러 지원) • 中-멕시코, 포괄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
9	6.7~8	미국	대외	양자	•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비공식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신형대국관계' 구축 및 '핵심이익' 존중 강조
10	6.19~21	UN	대내	양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중
11	6.19~21	베트남	대내	양자	• 쯔엉 떤상 국가주석 방중
12	6.27~30	한국	대내	양자	• 박근혜 대통령 방중, 한중 정상회담 개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 확보, 한중FTA 협의, 시안 광복군 유적지 표지석 허가 논의
13	7.5	파키스탄	대내	양자	• 파키스탄 나와즈 샤리프 총리 방중, 양국 국경 충돌 방지 및 군사관계 개선 방안 논의
14	7.9~12	나이지리아	대내	양자	• 조나단 대통령 방중
15	7.15~17	벨라루스	대내	양자	•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 방중
16	8.18~23	케냐	대내	양자	• 케냐 우후루 대통령 방중, 경제협력 논의
17	8.25~29	세르비아	대내	양자	• 니콜 리치 대통령 방중
18	9.3~13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대외	양자	• 중앙아 4국 순방 시, '육상 실크로드(陆上丝绸之路)' 구축 제안 • 中-투르크메니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건설 합의 •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는 반테러협력 강화 및 경제투자 약속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회의 참석 • 키르키즈스탄에서 개최된 SCO 정상회담 참석, 이란·시리아 사태에 대한 군사개입 반대 천명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19	9.14~16	바레인	대내	양자	• 하마드 국왕 방중
20	9.15~18	요르단	대내	양자	• 압둘라 2세 국왕 방중
21	9.21~24	베네수엘라	대내	양자	•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방중
22	9.25~28	아프가니스탄	대내	양자	• 아프가니스탄 카르자이 대통령 방중
23	10.5~6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외	다자	• APEC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방문, 러시아, 한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칠레 정상들과 양자회담 진행 – 인도네시아 의회 연설에서 '中-ASEAN 공동운명체'와 '21세기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海上丝绸之路)' 건설 제창
24	10.15~23	호주	대내	양자	• 브라이스 총독 방중
25	10.18~24	캐나다	대내	양자	• 존스턴 총독 방중
26	11.12~15	예멘	대내	양자	• 만수르 하디 대통령 방중
27	12.3~6	우크라이나	대내	양자	•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방중
2014년					
28	1.12~15	불가리아	대내	양자	• 로렌 대통령 방중
29	2.6~8	러시아	대외	양자	•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30	2.18~21	파키스탄	대내	양자	• 후세인 대통령 방중
31	3.22~4.1	유럽 4개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대외	다자	• 제3회 핵안보정상회의 참석(박 대통령과 회담에서 '남북 간 자주적·평화적 통일 희망' 언급) • 中-네덜란드 전면협력동반자관계 수립 • 中-프랑스 전면적 전략동반자관계 수립 • 中-독일 전방위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 中-EU '평화, 성장, 개혁, 문명의 동반자관계' 선언 • 유네스코 본부 및 유럽연합 본부 방문 • 유럽 순방 마지막 국가인 벨기에에서 '탱자론' 제시
32	4.8~10	이스라엘	대내	양자	• 이스라엘 시몬 페레스 대통령 방중시 시진핑, 팔레스타인과의 협상에서 실질적 성과 낼 것을 촉구
33	4.24~28	덴마크	대내	양자	• 덴마크 마그레테 여왕 방중 – 세계 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난징대학살 기념관 방문
34	5.12~18	포르투갈	대내	양자	• 실바 대통령 방중
35	5.11~14	투르크메니스탄	대내	양자	•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방중 – 중국-투르크메니스탄 우호협력조약 및 양국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 계획 등 체결
36	5.20~21	아시아 교류·신뢰구축회의	대내	다자	• '아시아 교류신뢰구축 회의(CICA)' 참석, 12개국 정상과 회담("공동(共同), 종합(綜合), 협력(合作), 지속가능한(可持續) 아시아 안보관") 제창 – 아시아 24국이 참여한 CICA회의를 안보대화 협력 협의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 •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37	6.11~19	콩고	대내	양자	• 조세프 카빌라 대통령 방중
38	6.27~30	미얀마	대내	양자	• 떼인 세인 대통령 방중
39	7.3~4	한국	대외	양자	•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첫 한국 국빈방문 – 한중 전략적동반자관계 내실화 및 지역 평화협력 협의 – 12개의 협력의향서 체결 및 90여개의 협력사업 확정 등 –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 한중FTA의 연내 타결 노력을 '공동성명'에 명시
40	7.15~23	중남미 4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바)	대외	다자	• 제6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참석 – 개방, 포용, 협력, 윈–윈의 브릭스 정신 주창 – 자본금 500억달러 규모의 신개발은행(NDB) 본부 중국(상하이) 설치, 1,000억달러의 위기대응기금 마련 등 합의 •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과 전면적 전략동반자관계 격상 • 중국–브라질,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관계 합의 • 중국–중남미, 카리브해국가 지도자회의 참석 –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11개국 정상들과의 회동 참석 • 中–중남미 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수립 및 '중국–중남미 포럼' 창설 합의 • 시진핑, 브라질 국회 연설에서 정보영역의 주권이익 강조
41	8.17	난징 유스올림픽	대내	양자	• 시진핑, 제2회 난징 유스올림픽 참석 – 반기문 UN 사무총장 등 10여개 국 정상들과 회담
42	8.19~20	우즈베키스탄	대내	양자	• 카리 모프 대통령 방중
43	8.21~22	몽골공화국	대외	양자	• 중국–몽골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관계 격상 – 30여개 협력의향서 서명 – 시진핑, "중국발전이란 '특급열차'에 타도 좋고 '무임승차'를 해도 환영" 시진핑의 '중국열차 탑승론'
44	8.24~28	짐바브웨	대내	양자	•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방중
45	8.31~9.2	루마니아	대내	양자	• 루마니아 빅토르 폰타 총리 방중 – 시진핑: "세계 각국이 중국발전의 '급행열차' 탑승해 공동 발전하는 것을 환영"
46	9.3~8	말레이시아	대내	양자	• 압둘 할림 대통령 방중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47	9.11~19	타지크스탄, 몰디브, 스리랑카, 인도	대외	다자	•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타지키스탄 방문 – 테러와 마약 등 공동대응 위한 '지역안보센터' 발족 제안 • 남아시아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약속 • 中-몰디브, 미래지향적인 전면적 우호협력동반자관계 수립 • 中-스리랑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심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서명 • 中-인도, 긴밀한 전략동반적관계 발전 강화 –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인도 고속철 건설사업에 중국이 향후 5년간 200억달러 투자하는 MOU 체결
48	10.21~26	탄자니아	대내	양자	• 키크 웨테 대통령 방중
49	10.24~27	체코	대내	양자	• 제만 대통령 방중
50	10.28~31	아프가니스탄	대내	양자	• 카르자이 대통령 방중
51	11.3~4	카타르	대내	양자	•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국왕 방중
52	11.7	APEC 회의	대내	다자	• APEC 회의 참석, 약 20여국 정상들과 회담 – 400억달러의 실크로드기금 출자 약속 – 회원국(한, 미, 일, 러 등) 및 비회원국(타지키스탄, 캄보디아 등)과 정상외교 추진 – 중국-한국, FTA 협상 타결 합의
53	11.11~12	미국	대내	양자	•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방중
54	11.14~23	대양주 3국 (호주, 뉴질랜드, 피지)	대외	다자	• G20 정상회의 참석차 대양주 3국방문 – 호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성장에서 중국의 핵심 역할 강조 – 중국-피지 정상회담 및 8개 태평양도서국가 총리들과의 회담에서는 대규모 원조를 약속
55	12.3~6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내	양자	• 남아공 제이콥 주마 대통령 방중 – 남아공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아프리카 연합(AU)의 신속대응군 창설 계획 지지
56	12.7~15	아일랜드	대내	양자	• 아일랜드 마이클 하긴스 대통령 방중
57	12.22~25	이집트	대내	양자	•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 방중

〈2013~2014년 리커창의 정상외교 현황〉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2013년					
1	4.6~10	캄보디아	대내	양자	• 훈센 총리 방중
2	4.13~18	아이슬란드	대내	양자	• 아이슬란드 시귀르다르도티르 총리 방중 – 중국-아이슬란드 FTA 체결
3	5.6~10	이스라엘	대내	양자	•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 후 총리 방중, 경제협력 논의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4	5.15~19	그리스	대내	양자	• 그리스 사마라스 총리 방중, 중국-그리스 경제협력 논의
5	5.19~27	인도, 파키스탄, 스위스, 독일	대외	양자	• 중국-인도 협력 공동성명 발표 및 국경 문제 논의 • 중국-파키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합의 • 스위스와 자유무역협정(FTA) 의향서 체결 • 독일 포츠담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비판
6	6.12~16	에티오피아	대내	양자	• 하일레 마리암 총리 방중
7	7.3	우간다	대내	양자	• 우간다 총리 방중
8	7.3~8	파키스탄	대내	양자	•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 방중, 양국 경제협력 강화 논의
9	7.9~12	나이지리아	대내	양자	• 조나단 대통령 방중, 대중국 원유 수출 확대 논의
10	7.19~21	스위스	대내	양자	• 스위스 마우러 대통령 방중, 양국 FTA 체결 관련 논의
11	8.20~25	자메이카	대내	양자	• 심슨 밀러 총리 방중
12	8.25~31	싱가폴	대내	양자	• 리셴룽 총리 방중
13	10.9~15	브루나이, 태국, 베트남	대외	다자	• 브루나이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 태국 방문, 태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 및 중국의 태국 사회인프라 건설사업 참여 등 '맞교환' 방식의 MOU • 베트남 방문, 남중국해 공동개발 원칙 합의
14	10.16~25	탄자니아	대내	양자	• 탄자니아 총리 방중
15	10.22	러시아, 인도, 몽골	대내	양자	• 러시아·인도·몽골 3개국 총리가 동시에 중국 방문 - 미국의 'Pivot to Asia' 견제 위한 포석 • 러시아 메드베데프 총리, 에너지·통신·교육 포함 총 22개 협력문서 서명 • 인도 만모한 싱 총리, 양국 간 국경협력협약 체결 • 몽골 알탕호약 총리, '육상 실크로드' 관련 논의
16	11.15~16	네덜란드	대내	양자	• 마르크 뤼터 총리 방중
17	11.25~29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대외	다자	• 루마니아 방문, 고속철 건설, 원자력·화력·풍력 발전소 건설 등 MOU 체결 •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참석
18	12.2~4	영국	대내	양자	• 영국 캐머런 총리 방중, 주권과 영토존중 및 티베트 독립 반대 등 표명, 약 92억 달러 규모 계약 체결
19	12.5~9	프랑스	대내	양자	• 프랑스 장 마르크 에로 총리 방중, 자동차 및 원자력 부문 협력 논의
2014년					
20	1.19~23	벨라루스	대내	양자	• 미하일 먀스니코비치 총리 방중
21	2.11~13	헝가리	대내	양자	• 빅토르 오르반 총리 방중
22	2.24~28	트리니나드토바고	대내	양자	• 캄라 퍼사드 비세사 총리 방중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23	3.18~20	뉴질랜드	대내	양자	• 존 키 총리 방중
24	4.9~11	보아오 포럼 다자회담 및 양자회담	대내	다자	• 보아오 포럼 참석 – 정홍원 총리와 한중 총리회담 개최, 북핵문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중국의 공조 재확인 – 나미비아 총리 등과 회담
25	5.4~11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	대외	다자	•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비동맹회의' 참석, 아프리카 차관 100억 달러 증액 약속(총 300억 달러) • 나이지리아 방문, 고속철·고속도로·항공노선 등 '3개 네트워크' 구축 제안 • 앙골라 방문, 앙골라 횡단철도 건설 관련 논의 (2014.08, 중국 1,300km 규모의 앙골라 횡단철도 완공) • 케냐 방문, 케냐 신규 철도 건설에 38억달러 지원 합의
26	5.27~6.1	말레이시아	대내	양자	• 나지브 총리 방중
27	6.2~5	쿠웨이트	대내	양자	• 자베르 총리 방중
28	6.6~6.11	방글라데시	대내	양자	• 셰이크 하시나 총리 방중
29	6.10~12	이탈리아	대내	양자	• 마테오 렌치 총리 방중
30	6.15~21	영국, 그리스	대외	양자	•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과 캐머런 총리 등 회담 – 中-영국, 전면적전략동반자관계 격상 및 무역확대 합의 • 그리스 사마라스 총리 등과 회담, 4조 7천억달러 규모의 무역 및 투자협정 체결
31	7.6~8	독일	대내	양자	•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과거사 인식 문제의 중요성 지적
32	8.25~31	엔티카바부다	대내	양자	• 개스턴 브라운 총리 방중
33	8.31~9.2	루마니아	대내	양자	• 빅토르 폰타 총리 방중
34	9.24~27	스페인	대내	양자	• 스페인 라호이 총리 방중, 통신·원자력·금융·에너지 등 총 14개 분야 4조 2천억 규모의 경제협력 계약 체결
35	10.9~18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대외	양자	• 독일 방문, 메르켈 총리와 회담 – A320 항공기 70대의 구매계약 체결 등 총 19조 4천억 규모의 정부 간 합의 및 계약 체결 • 이탈리아 방문, 총 10조 8천억달러 규모의 무역협정 20개 체결 • 러시아 방문, 러시아 고속철 건설사업에 대한 중국 기업의 주도적 참여 약속
36	11.6~10	캐나다	대내	다자	• APEC 회의 참석 – 캐나다 하퍼 총리와 회담, 中-캐나다 통화스왑 협정 체결 등
37	11.11~12	미국	대내	양자	•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방중, 리커창 등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전원 참석 회담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38	11.12~14	미얀마, ASEAN	대외	다자	•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 – 아세안+중국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39	12.14~21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태국	대외	다자	• 카자흐스탄 방문, 상하이협력기구(SCO) 이사회 참석 – 140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및 통화스왑 협정 체결 • 세르비아 방문, 제2회 '중국-동유럽 국가 정상회의' 참석 및 세르비아·헝가리·마케도니아 총리와 회동 • 태국 방문, 메콩강경제권(GMS) 정상회의 참석 – 메콩강 주변 5개국에 30억달러 무상원조 제공 약속 – '중국-태국 철도협력 양해각서' 체결(총 연장 800km)
40	12.22~23	태국	대내	양자	• 태국 프라윳 찬-오차 총리 방중 – 12조 규모 통화스왑 연장, 태국 내 위완화 청산 결제 은행 설립 등에 관한 4건의 MOU 체결

〈2013~2014년 아베(집권 2기)의 정상외교 현황〉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2013년					
1	1.14	팔레스타인	대내	양자	• 파이야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와 회담
2	1.16	베트남	대외	양자	• 응웬떤중 총리, 응우옌푸쫑 공산당 서기장 등과 회담
3	1.17	타이	대외	양자	• 인락 총리와 회담, 푸미폰 국왕과 회담 등
4	1.18	인도네시아	대외	양자	• 유도요노 대통령과 회담
5	2.22	미국	대외	양자	•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
6	2.15	팔라우	대내	양자	• 레멩게사우 대통령과 회담
7	2.27	키르기스스탄	대내	양자	• 아탐바예프 대통령과 회담
8	3.1	베낭	대내	양자	• 야이 대통령과 회담
9	3.6	슬로베니아	대내	양자	• 파호르 대통령과 회담
10	3.14	스리랑카	대내	양자	• 라자팍사 대통령과 회담
11	3.21	바레인	대내	양자	• 살만 황태자와 회담
12	3.30~31	몽골	대외	양자	• 엘벡도르지 대통령 등과 회담
13	4.8	멕시코	대내	양자	• 니에토 대통령과 회담
14	4.10	라트비아	대내	양자	• 돔브롭스키스 총리와 회담
15	4.29	러시아	대외	양자	• 푸틴 대통령과 회담
16	4.30~5.1	사우디아라비아	대외	양자	• 살만 황태자, 압둘라 국왕과 회담
17	5.1~5.2	아랍에미리트	대외	양자	• 무함마드 아부다비 황태자 등과 회담
18	5.3	터키	대외	양자	• 에르도안 총리와 회담
19	5.13	브루나이	대내	양자	• 볼키야 국왕과 회담
20	5.22	싱가포르	대내	양자	• 리센룽 총리와 회담
21	5.23	타이	대내	양자	• 인락 총리와 회담
22	5.24~26	미얀마	대외	양자	• 떼인세인 대통령과 회담, 아웅산 수치 국민민주연맹 의장 표경 등
23	5.29	인도	대내	양자	• 만모한 싱 총리와 회담
24	6.1~3	제5차 아프리카개발회의 (요코하마)	대내	다자	• 아프리카 51개국, 31개 개발 동반자 국가, 아시아 각국, 72개 국제기관 및 지역기구 대표, 민간 NGO 대표 등 약 4,500명 참가 • 아프리카 각국 정상과 양자회담
25	6.4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내	양자	• 주마 대통령과 회담
26	6.7	프랑스	대내	양자	• 올랑드 대통령과 회담
27	6.16	체코 (폴란드 방문 중)	대외	양자	• 네차스 총리와 회담
28	6.16	슬로바키아 (폴란드 방문 중)	대외	양자	• 피코 총리와 회담
29	6.16	헝가리 (폴란드 방문 중)	대외	양자	• 빅토르 총리와 회담
30	6.16	폴란드	대외	양자	• 투스크 총리, 코모로프스키 대통령과 회담
31	6.16	폴란드	대외	다자	• V4+일본 정상회담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32	6.17	영국	대외	다자	• G8 정상회담 참석 • 캐머런 영국 총리, 캐나다 총리, 독일 총리, EU 대표, 푸틴 러 대통령 등과 회담
33	6.19	아일랜드	대외	양자	• 케니 총리, 히긴즈 대통령과 회담
34	7.25~26	말레이시아	대외	양자	• 나지브 총리와 회담
35	7.26	싱가포르	대외	양자	• 리센룽 총리와 회담
36	7.26~27	필리핀	대외	양자	• 아키노 대통령과 회담
37	8.24~25	바레인	대외	양자	• 할리파 총리와 회담
38	8.26	쿠웨이트	대외	양자	• 샤리프 총리와 회담
39	8.27	지부티	대외	양자	• 게레 대통령과 회담
40	8.28	카타르	대외	양자	• 타밈 수장과 회담
41	9.4~9	러시아	대외	다자	• G20 페테르부르그 정상회의 및 IOC 총회 참석
42	9.11	투르크메니스탄	대내	양자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회담
43	9.23~28	미국(뉴욕)	대외	다자	• UN 총회 참석
44	9.24	캐나다	대외	양자	• 하퍼 총리와 회담
45	9.29	몽골	대내	양자	•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회담
46	10.3	스페인	대내	양자	• 라호이 총리와 회담
47	10.7~10	인도네시아 (발리)	대외	다자	• APEC 정상회의 참석 • ASEAN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48	10.28~30	터키	대외	양자	• 에르도안 총리와 회담
49	10.29	루마니아 (터키 방문 중)	대외	양자	• 폰타 총리와 회담
50	10.31	미크로네시아 연방	대내	양자	• 모리 대통령과 회담
51	11.5	자마이카	대내	양자	• 심슨밀러 총리와 회담
52	11.16	캄보디아	대외	양자	• 훈센 총리와 회담
53	11.17	라오스	대외	양자	• 탐마봉 총리와 회담
54	11.19	EU	대내	다자	• 제21회 일-EU정기정상협의
55	11.21	헝가리	대내	양자	• 빅토르 총리와 회담
56	12.14	ASEAN	대내	다자	• 일-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일-메콩지역 정상회의
2014년					
57	1.7	터키	대내	양자	• 에르도안 총리와 회담
58	1.9	오만	대외	양자	• 카부스 국왕과 회담
59	1.10~11	코트디부아르	대외	양자	• 우아타라 대통령과 회담 • 서아프리카 각국 정상과 간담회
60	1.11~13	모잠비크	대외	양자	• 게부자 대통령과 회담
61	1.13~14	에티오피아	대외	양자	• 하일레마리암 총리와 회담
62	1.21~23	스위스	대외	다자	• 세계경제포럼(다보스회의) 참석
63	1.25~27	인도	대외	양자	• 싱 총리와 회담
64	2.5	스위스	대내	양자	• 부르칼테르 대통령 겸 외무장관과 회담
65	2.7~8	러시아	대외	양자	• 소치올림픽 참관 • 푸틴 대통령과 회담
66	2.14	마샬제도	대내	양자	• 로에악 대통령과 회담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67	2.19	사우디아라비아	대내	양자	• 살만 황태자와 회담
68	3.7	에스토니아	대내	양자	• 일베스 대통령과 회담
69	3.13	소말리아	대내	양자	• 마하무드 대통령과 회담
70	3.18	베트남	대내	양자	• 쯔언떤상 국가주석과 회담
71	3.23~26	네덜란드	대외	다자	• 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 참석 • G7 정상회담 • 한미일 정상회담 • 이국간(EU,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캐나다, 프랑스) 회담
72	4.14	코소보	대내	양자	• 타치 총리와 회담
73	4.15	몰디브	대내	양자	• 가윰 대통령과 회담
74	4.16	몽골	대내	양자	•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오찬 회담
75	4.24	미국	대내	양자	•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
76	4.30	독일	대외	양자	• 메르켈 총리와 회담
77	5.1	영국	대외	양자	• 캐머런 총리와 회담
78	5.2	포르투갈	대외	양자	• 코엘료 총리와 회담
79	5.4	스페인	대외	양자	• 라호이 총리와 회담
80	5.5	프랑스	대외	양자	• 올랑드 대통령과 회담
81	5.7	벨기에	대외	다자	• 뤼포 총리와 회담 • 제22회 일-EU 정기 정상협의
82	5.12	이스라엘	대내	양자	•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83	5.21	말레이시아	대내	양자	• 라자크 총리와 회담
84	5.26	방글라데시	대내	양자	• 하시나 총리와 회담
85	5.30~31	싱가포르	대외	다자	• 제13회 샹그릴라 다이알로그(아시아안보회의) 참석 • 리센룽 총리와 회담
86	6.3~5	벨기에	대외	다자	• G7 정상회의
87	6.6	이탈리아	대외	양자	• 렌치 총리와 오찬회담 • 바티칸 방문
88	6.24	필리핀	대내	양자	• 아키노 대통령과 회담
89	6.30	부탄	대내	양자	• 톱게 총리와 회담
90	7.1	마케도니아	대내	양자	• 그루엡스키 총리와 회담
91	7.7	뉴질랜드	대외	양자	• 키 총리와 회담
92	7.8	오스트레일리아	대외	양자	• 애벗 총리와 회담
93	7.10	파푸아뉴기니	대외	양자	• 오닐 총리와 회담
94	7.25~27	멕시코	대외	양자	• 니에토 대통령과 회담
95	7.27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외	양자	• 파사드비세사 총리와 회담
96	7.27	앤티가바부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방문중)	대외	양자	• 브라운 총리와 회담
97	7.27	자마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방문중)	대외	양자	• 심슨밀러 총리와 회담
98	7.28	트리니다드토바고	대외	다자	• 일-카리브공동체 14개국 정상회의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99	7.28~30	콜롬비아	대외	양자	• 산토스 대통령과 회담
100	9.6	방글라데시	대외	양자	• 하시나 총리와 회담
101	9.7	스리랑카	대외	양자	• 라자팍사 대통령과 회담
102	9.21~26	미국 (뉴욕 UN 총회)	대외	다자	• 몽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카타르, 파나마, 프랑스, 호주 정상과 회담
103	10.15~18	이탈리아 (밀라노)	대외	다자	• ASEM 정상회의 참석 • EU,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베트남, 북유럽 및 발트 8개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타이 등 정상과 회담
104	10.25	조지아	대내	양자	• 마르그벨라슈빌리 대통령과 회담
105	10.28~31	네덜란드	대내	양자	•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부처 방일 및 일-네 외무장관 회담
106	11.10~11	중국(베이징)	대외	다자	• APEC 정상회의 •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캐나다, 페루 정상회담
107	11.12~13	미얀마	대외	다자	• 일-ASEAN 정상회의
108	11.12	미얀마	대외	다자	• 일-메콩지역 국가 정상회의
109	11.13	미얀마	대외	다자	• 동아시아 정상회의
110	11.13	미얀마	대외	다자	•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 말레이시아, 미얀마, 타이, 필리핀, 호주 정상회담
111	11.15~16	오스트레일리아	대외	다자	• G20 브리즈번 정상회의 • EU, 남아공, 미국, 싱가포르, 인도, 호주 정상회담
112	11.20	요르단	대내	양자	• 압둘라 2세 국왕과 회담
113	12.17	팔라우	대내	양자	• 레멩게사우 대통령과 회담

〈2012~2014년 푸틴(집권 3기)의 정상외교 현황〉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2012년					
1	5.11	압하스	대내	양자	• 안코바브 대통령과 회담
2	5.12	남오세티야	대내	양자	• 티빌로프 대통령과 회담
3	5.15	CSTO 정상회의 및 양자 회담	대내	다자	• CSTO 창설 10주년 기념 •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참석
4	5.15	우크라이나	대내	양자	•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회담
5	5.26	우크라이나	대내	양자	• 아자로프 총리와 회담
6	5.26	세르비아	대내	양자	• 토마슬라브 니콜리치 대통령 당선자와 회담
7	5.31~6.1	벨라루스	대외	양자	• 집권 3기 첫 해외 공식 방문 루카셴코 대통령과 회담
8	6.1	독일	대외	양자	• 메르켈 총리와 회담
9	6.1	프랑스	대외	양자	• 올랑드 대통령과 회담
10	6.4	우즈베키스탄	대외	양자	• 카리모프 대통령과 회담
11	6.4	EU	대내	다자	• EU-러시아 정상회의(페테르부르그) • 호세 마누엘 바로소 EC(유럽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
12	6.6~7	중국	대외	다자	• SCO 정상회의 • 이란,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13	6.7~8	카자흐스탄	대외	양자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회담
14	6.18	멕시코	대외	다자	• G-20 정상회의 • 미국, 일본, BRICs 정상들과 회담
15	6.22	핀란드	대내	양자	• 니니스퇴 대통령과 회담
16	6.25~26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대외	양자	• 네타냐후 총리, 페레스 대통령과 회담 • 팔레스타인 압바스 자치정부 수반과 회담 • 요르단 압둘라 국왕과 회담
17	7.11	쿠바	대내	양자	•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 회담
18	7.12	우크라이나	대외	양자	•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회담 •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가간위원회 참석
19	7.18	터키	대내	양자	• 에르도안 총리와 회담
20	7.19	스페인	대내	양자	• 카를로스 국왕과 회담
21	7.23	이탈리아	대내	양자	• 몬티 내각회의 의장과 회담
22	7.27	베트남	대내	양자	• 쯔엉떤상 대통령과 회담
23	7.28	일본	대내	양자	• 겐바 외무상과 회담
24	8.2	영국	대외	양자	• 캐머런 총리와 회담
25	8.8	아르메니아	대내	양자	• 사르그샨 대통령과 회담
26	8.25	우크라이나	대내	양자	•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회담
27	9.7~9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대내	다자	• 이명박 대통령 등 APEC 회원국 정상들과 회담
28	9.11	세르비아	대내	양자	• 니콜리치 대통령과 회담
29	9.12	몰도바	대내	양자	• 필라트 총리와 회담
30	9.15	벨라루스	대내	양자	• 루카셴코 대통령과 회담
31	9.19	카자흐스탄	대외	양자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회담 • 러-카 지역간 협력포럼 참석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32	9.20	키르기스스탄	대외	양자	• 아탐바예프 대통령과 회담
33	9.25	룩셈부르크	대내	양자	• 융커 총리와 회담
34	10.5	타지키스탄	대외	양자	• 라흐몬 대통령과 회담 • 동국 주둔 러시아 201 군 기지 방문
35	10.9	카자흐스탄	대내	양자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회담
36	10.10	이라크	대내	양자	• 말리키 총리와 회담
37	10.17	아랍에미리트	대내	양자	• 나하이얀 왕자와 회담
38	10.22	우크라이나	대내	양자	•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회담
39	10.24	남오세티야	대내	양자	• 티빌로프 대통령과 회담
40	11.8	이스라엘	대내	양자	• 페레스 총리와 회담
41	11.12	슬로베니아	대내	양자	• 얀샤 총리와 회담
42	11.13	콩고 공화국	대내	양자	• 드니 사수응게소 대통령과 회담
43	11.16	독일	대내	양자	• 메르켈 총리와 회담 • 러시아-독일 포럼 '페테르부르그 대화' 참석
44	12.3	터키	대외	양자	• 에르도안 총리와 회담
45	12.5	투르크메니스탄	대외	다자	• CIS 정상회의
46	12.6	중국	대내	양자	•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
47	12.11	벨기에(브뤼셀)	대외	다자	• 러시아-EU 정상회의
48	12.11	우간다	대내	양자	• 무세베니 대통령과 회담
49	12.14	브라질	대내	양자	• 호세프 대통령과 회담
50	12.14	인도	대외	양자	• 싱 총리 등과 회담
51	12.19	CSTO 정상회의	대내	다자	• Eurasec 정상회의
2013년					
52	1.15	방글라데시	대내	양자	• 하시나 총리와 회담
53	1.23	레바논	대내	양자	• 술레이만 대통령과 회담
54	1.30	헝가리	대내	양자	• 오르반 총리와 회담
55	2.8	카자흐스탄	대내	양자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회담
56	2.12	핀란드	대내	양자	• 니니스퇴 대통령과 회담
57	2.19	요르단	대내	양자	• 압둘라 국왕과 회담
58	2.21	일본	대내	양자	• 모리 요시로 특사와 회담
59	2.28	프랑스	대내	양자	• 올랑드 대통령과 회담
60	3.4	우크라이나	대내	양자	•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회담
61	3.12	아르메니아	대내	양자	• 사르그샨 대통령과 회담
62	3.12	압하스	대내	양자	• 안크바브 대통령과 회담
63	3.14	팔레스타인	대내	양자	• 압바스 자치수반과 회담
64	3.22	중국	대내	양자	• 시진핑 주석과 회담
65	3.26~27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외	다자	• BRICs 정상회의
66	4.2	예멘	대내	양자	• 하디 대통령과 회담
67	4.7	독일	대외	양자	• 하노버 산업 박람회 참석 • 메르켈 총리와 회담
68	4.8	네덜란드	대외	양자	• 뤼터 총리와 회담
69	4.15	우즈베키스탄	대내	양자	• 카리모프 대통령과 회담
70	4.19	이집트	대내	양자	• 무르시 대통령과 회담
71	4.29	일본	대내	양자	• 아베 총리와 회담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72	5.7	미국	대내	양자	• 케리 국무장관과 회담
73	5.10	영국	대내	양자	• 캐머런 총리와 회담
74	5.14	이스라엘	대내	양자	•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75	5.15	베트남	대내	양자	• 응우옌떤중 총리와 회담
76	5.16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내	양자	• 주마 대통령과 회담
77	5.17	UN	대내	양자	• 반기문 사무총장과 회담
78	5.20	EU	대내	양자	• 야글란드 사무총장과 회담
79	5.21	남오세티야	대내	양자	• 티빌로프 대통령과 회담
80	5.24	세르비야	대내	양자	• 니콜리치 대통령과 회담
81	5.26	우크라이나	대내	양자	•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회담
82	5.27	체코	대내	양자	• 네차스 총리와 회담
83	5.28	키르기스스탄	대외	다자	• CSTO 비공식 정상회담 • 아탐바예프 대통령 등과 회담
84	5.28	카자흐스탄	대외	다자	• 최고유라시아경제위원회 회의 참석
85	6.4	EU	대내	다자	• 러시아-EU 정상회의
86	6.16~18	영국	대외	다자	• 북아일랜드 G8 정상회의 • 캐머런 총리,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 등과 회담
87	6.20	네덜란드	대내	양자	• 뤼트 총리와 회담
88	6.21	독일	대내	양자	• 메르켈 총리와 회담
89	6.25	핀란드	대외	양자	• 니니스퇴 대통령과 회담
90	7.2	멕시코	대내	양자	• 마두로 대통령과 회담
91	7.2	이란	대내	양자	•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과 회담
92	7.2	볼리비아	대내	양자	• 모랄레스 대통령과 회담
93	7.7	카자흐스탄	대외	양자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회담
94	7.31	사우디아라비아	대내	양자	• 반다르벤술탄 왕자와 회담
95	8.1	타지키스탄	대내	양자	• 라흐몬 대통령과 회담
96	8.13~14	아제르바이잔	대외	양자	• 상호협력협정 등 체결
97	8.15	압하스	대내	양자	• 안크바브 대통령과 회담
98	8.25	압하스	대외	양자	• 안크바브 대통령과 회담
99	9.3	아르메니아	대내	양자	• 사르그샨 대통령과 회담
100	9.5~6	페테르부르그 G20정상회의	대내	다자	• 박근혜 대통령 등과 회담
101	9.12	아랍에미리트	대내	양자	• 알나하이얀 왕위계승자와 회담
102	9.13	키르기스스탄	대외	다자	• SCO정상회의
103	9.23	CSTO 정상회의	대내	다자	• CSTO 가입국 정상들과 회담
104	9.24	핀란드	대내	양자	• 니니스퇴 대통령과 회담
105	9.25	아이슬란드	대내	양자	• 그림손 대통령과 회담 • 국제북극포럼 참석
106	10.4	모나코	대내	양자	• 알베르트 국왕과 회담
107	10.7~8	인도네시아 (발리)	대외	다자	• APEC(아태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 • 경제인포럼 참석 및 일련의 양자 회담
108	10.21	인도	대내	양자	• 싱 총리와 회담
109	10.24~25	벨라루스	대외	다자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및 CIS 정상회의
110	10.29	에쿠아도르	대내	양자	• 코레아 대통령과 회담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111	10.30	세르비아	대내	양자	• 니콜리치 대통령과 회담
112	11.1	프랑스	대내	양자	• 에로 총리와 회담
113	11.8	네덜란드	대내	양자	• 알렉산드르 국왕과 회담
114	11.11	카자흐스탄	대내	양자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회담 • 러-카 지역간 협력포럼 참석
115	11.12	베트남	대외	양자	• 쯔엉떤상 국가주석과 회담
116	11.13	한국	대외	양자	•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
117	11.20	이스라엘	대내	양자	•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118	11.22	터키	대내	양자	• 러-터 최고위급 협력위원회 회의 • 에르도안 총리와 회담
119	11.25~26	바티칸·이탈리아	대외	양자	• 나폴리타노 대통령 등과 회담 • 러-이 비즈니스포럼 등 참석
120	12.2	아르메니아	대외	양자	• 사르그샨 대통령과 회담 • 귬리 방문
121	12.3	사우디아라비아	대내	양자	• 벤술탄 왕자와 회담
122	12.17	우크라이나	대내	양자	•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회담 • 러-우 국간간 위원회 회의
123	12.24	최고유라시아 경제평의회	대내	다자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등과 회담
2014년					
124	1.14	헝가리	대내	양자	• 오르반 총리와 회담
125	1.16	이란	대내	양자	• 자리프 외무장관과 회담
126	1.23	팔레스타인	대내	양자	• 압바스 자치수반과 회담
127	1.28	벨기에	대외	다자	• 러시아-EU 정상회의 •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와 회담
128	2.6	타지키스탄	대내	양자	• 라흐몬 대통령과 회담(소치)
129	2.6	중국	대내	양자	• 시진핑 주석과 회담(소치)
130	2.6~8	터키·네덜란드·일본 등	대내	양자	• 터키 총리, 네덜란드 총리, 일본 총리 등과 회담(소치)
131	2.13	이집트	대내	양자	• 이집트 국방장관, 총리 등과 회담
132	3.5	최고유라시아 경제위원회	대내	다자	•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정상 등과 회담
133	4.9	요르단	대내	양자	• 압달라 국왕과 회담
134	4.29	벨라루스	대외	다자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회의
135	4.30	바레인	대내	양자	• 알할리파 왕위 계승자와 회담
136	5.7	스위스	대내	양자	• 부르칼테르 대통령과 회담
137	5.8	CSTO 정상회의	대내	다자	•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회담
138	5.20~21	중국	대외	다자	• CICA 회의
139	5.23~24	페테르부르그 국제경제포럼	대내	다자	• 중국 부주석, 몽골 총리 등과 회담
140	5.25	벨라루스	대외	양자	• 세계하키선수권대회 결승전 관람
141	5.29	카자흐스탄	대외	다자	•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 동 연합 가입국 정상들과 회담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142	6.5~6	프랑스	대외	다자	• 노르망디작전 70주년 기념식 참석 • 독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우크라이나 포로셴코 대통령과 회담
143	6.24	오스트리아	대외	양자	• 피셔 대통령과 회담 • 부르칼테르 스위스 대통령과 회담
144	6.25	팔레스타인	대내	양자	• 압바스 자치수반과 회담
145	7.1	벨라루스	대외	양자	• 벨라루스의 독일 파시스트 해방 • 70주년 축하
146	7.8	세르비아	대내	양자	• 부치치 총리와 회담
147	7.9	이탈리아	대내	양자	• 모게리니 외무장관과 회담
148	7.11~12	쿠바	대외	양자	• 라울/피델 카스트로 환담 • 쿠바 감청기지 재가동 합의
149	7.12	니카라구아	대외	양자	• 오르테가 대통령과 회담
150	7.13	아르헨티나	대외	양자	• 크리스티나 대통령과 회담
151	7.13	브라질	대외	양자	• 월드컵 결승전 관람
152	7.14~16	브라질	대외	다자	• BRICs 정상회의 참석 • 중국 등 각국 정상과 회담
153	8.9	아제르바이잔	대내	양자	• 알리예프 대통령과 회담
154	8.9	아르메니아	대내	양자	• 사르그샨 대통령과 회담
155	8.10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대내	다자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3자 회담
156	8.11	키르기스스탄	대내	양자	• 아탐바예프 대통령과 회담
157	8.12	이집트	대내	양자	• 시시 대통령과 회담
158	8.15	핀란드	대내	양자	• 니니스퇴 대통령과 회담
159	8.27	압하스	대내	양자	• 하짐바 대통령과 회담
160	8.26~27	벨라루스	대외	다자	• 유라시아연합, EU 대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161	8.28	남아공	대내	양자	• 주마 대통령과 회담
162	9.1	중국	대내	양자	• 국가평의회 부의장 장가오리와 회담 •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 착공식 참석(야쿠티야)
163	9.3	몽골	대외	양자	•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회담
164	9.11~12	타지키스탄	대외	다자	• SCO 정상회의 참석
165	9.18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내	양자	• 도디크 대통령과 회담
166	9.29	제4차 카스피해 정상회의	대내	다자	• 이란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등과 회담
167	9.30	카자흐스탄 (아티라우)	대외	양자	• 제11차 러-카 지역간협력포럼
168	10.10	벨라루스	대외	다자	• CIS 정상회의 참석
169	10.12	바레인	대내	양자	• 알할리파 국왕과 회담
170	10.14	중국	대내	양자	• 리커창 총리와 회담
171	10.16	세르비아	대외	양자	• 니콜리치 대통령, 부치치 총리와 회담
172	10.16~17	이탈리아(밀라노)	대외	다자	• ASEM 회의 참석 •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과 회담

번호	일시	국가	유형	형태	내용
173	10.23	아랍에미리트	대내	양자	• 알나하이얀 왕위계승자와 회담
174	11.7	페루	대내	양자	• 우말라 대통령과 회담
175	11.9~11	중국	대외	다자	• APEC 정상회의 참석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정상 및 IMF 총재와 회담
176	11.15~16	오스트레일리아	대외	다자	• G20(브리스번) 정상회의 참석 • BRICs 정상들 및 이탈리아 각료회의 의장, 영국 총리,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유럽위원회 의장과 회담
177	11.24	아브하지야	대내	양자	• 하짐바 대통령과 회담
178	11.25	베트남	대내	양자	• 응우옌푸쫑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
179	11.26	시리아	대내	양자	• 무알렘 외무장관과 회담
180	12.1	터키	대외	양자	• 에르도안 대통령, 다우톨루 총리와 회담
181	12.6	프랑스	대내	양자	• 올랑드 대통령과 회담(브누코보 공항)
182	12.10	우즈베키스탄	대외	양자	• 카리모프 대통령과 회담
183	12.10~11	인도	대외	양자	• 모디 총리와 회담 • 국제다이아몬드회의 참석
184	12.22	카자흐스탄	대내	양자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회담
185	12.23	CSTO 정상회의	대내	다자	• CSTO 가입국 정상들과 회담

최근 2년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UC 15-02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 02-2023-8000
팩스 : 02-2023-8297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전화: 02-2269-9917
인 쇄 2015년 4월
발 행 2015년 4월

최근 2년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KINU 통일연구원
www.kinu.or.kr